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급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 연구

## -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종 진

# 중급 한국어 교재의
# 어휘 사용 양상 변화 연구
## -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 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종 진

# 인 준 서

이종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박 복 자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일 환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장 현 묵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개발한 중급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 코퍼스(KTC)로부터 추출한 (구)한국어 교재 코퍼스(O-KTC)와 새롭게 구축한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장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중급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한국어 교재의 어휘 관련 연구와 말뭉치 기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 및 변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어떤 종류들의 교재가 개발되었는지 정리하고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을 질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새롭게 개발한 중급 한국어 교재 24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형태 분석 코퍼스 생성 과정과 교재별 어휘 사용 비교를 위한 상대적 고빈도 어휘 추출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코퍼스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유형, 총 어휘 수 그리고 어휘적 다양도를 기준으로 전체 어휘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어 주요 어휘 범주(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를 중심으로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에 대한 통시적 비교와 공시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중급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제언을 덧붙였다.

# 목 차

논문 개요
1.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연구 검토 ····· 2
1.2.1. 한국어 교재 어휘 관련 연구 ····· 3
1.2.2. 말뭉치 기반 한국어 교육 연구 ····· 4
1.3. 연구 문제 ····· 7

2. 한국어 교재의 종류와 변화 양상 ····· 9
2.1.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 ····· 9
2.2.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 ····· 12

3. 연구 방법 및 절차 ····· 15
3.1 코퍼스 분석 방법 ····· 15
3.1.1. 형태 분석과 태깅(tagging) ····· 15
3.1.2. t-점수를 이용한 상대적 고빈도 어휘의 도출 ····· 17
3.2. 분석 대상 ····· 19
3.2.1. 한국어 교재 코퍼스(KTC)와 (구)한국어 교재 코퍼스(O-KTC) ···· 19
3.2.2.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 ····· 22

4. 중급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분석 ····· 27
4.1. 주요 어휘 범주의 사용 빈도 ····· 27
4.2.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의 통시적 비교 ····· 28
4.2.1. 일반명사 ····· 32
4.2.2. 동사 ····· 39
4.2.3. 형용사 ····· 43
4.2.4. 일반부사 ····· 49
4.3.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의 공시적 비교 ····· 53
4.3.1. 일반명사 ····· 54
4.3.2. 동사 ····· 55
4.3.3. 형용사 ····· 56
4.3.4. 일반부사 ····· 58

5. 결 론 ····· 60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표 목 차

<표 1> 서울 소재 대학 기관의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 10
<표 2> KTC(한국어 교재 코퍼스)의 구성 ····· 20
<표 3> O-KTC((구)한국어 교재 코퍼스)의 구성 ····· 22
<표 4> 기관별 한국어 교재(중급) 목록 ····· 23
<표 5>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 규모 ····· 25
<표 6> 각 기관별 신-구 교재의 코퍼스 규모 ····· 26
<표 7> 주요 어휘 범주의 어휘 유형, 총 어휘수, 어휘적 다양도 비교 ····· 27
<표 8> 경희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29
<표 9> 고려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29
<표 10> 서울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30
<표 11> 연세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30
<표 12> 기관별 중급 교재의 일반명사 상위 빈도 50개 ····· 32
<표 13> 경희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34
<표 14> 고려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35
<표 15> 서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36
<표 16> 연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38
<표 17> 기관별 중급 교재의 동사 상위 빈도 50개 ····· 40
<표 18> 기관별 교재의 t-점수 상위 동사 목록 ····· 41
<표 19> 기관별 중급 교재의 형용사 상위 빈도 50개 ····· 43

<표 20> 경희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45
<표 21> 고려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46
<표 22> 서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47
<표 23> 연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48
<표 24> 기관별 중급 교재의 일반부사 상위 빈도 30개 ····· 49
<표 25> 시기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정도부사 ····· 51
<표 26> 기관별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부사 목록 ····· 52
<표 27>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일반명사 ····· 54
<표 28>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동사 ····· 56
<표 29>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형용사 ····· 57
<표 30>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부사 ····· 59

# 그 림 목 차

<그림 1> 개정 중급 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의 형태 분석 결과 예시 ···· 16
<그림 2> t-점수 산출 방식 ····· 18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개정이 이루어진 한국어 교재와 이전의 한국어 교재들이 담고 있는 어휘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기존 한국어 교재와 개정판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말뭉치를 구축한 후, 기존 교재와 개정판 교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교재란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바로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다(민현식, 2000:1). 이러한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포함하여 언어 교육 현장의 3대 요소라 하는데, 광의로는 흔히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과서'에만 국한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광의의 교재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전, 문법책, 익힘책 등이 포함되며 신문이나 방송, 안내문,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포함된다. 반면 협의의 교재는 교육 기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 요목에 근거해 선정되고 조직된 자료를 의미하며 주 교과서만으로 교재를 한정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로 교재를 해석한 것이다(강현화 외, 2022:18-19).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교재로서 한국어 교재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언어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서 비디오, DVD,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 자료들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류선숙 외, 2021:439). 또한 최근에는 비실시간 녹화형 교육과정과 실시간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장점을 합친 혼합형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어 교재는 온라인 교육과정과 혼합형 교육과정에서의 사용까지 고려한 웹 기반 분리형으로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김민경, 2023).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 한국어 정규 교육 과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목표 및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수업을 촉진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사 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료로서의 교재(서종학 외, 2020)의 중심에는 교과서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각 교육 기관들이 제공하는 한국어 교재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교재 내에서 어떠한 어휘를 목표 어휘로 제시하였는지 혹은 교재 내에 제공되는 다양한 문장 내에서 부수적으로 어떠한 어휘들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어휘는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교재의 주제와 기능이 드러나는 언어 범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의 변화를 총체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1.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재에 사용된 어휘의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되는 어휘 사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어휘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말뭉치 연구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2.1. 한국어 교재 어휘 관련 연구

한국어 교재와 어휘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어 어휘 교육의 전반과 교재 내 어휘를 다룬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문금현(2010)과 이유경(2018)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현황을 다룬 문금현(2010:111)에서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어 어휘교육에 관한 연구가 달라졌으며 그 구체적 양상으로 어휘의 기초 자료 구축에 따라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학습 단계별, 학습자의 언어권별, 학습자의 요구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 말뭉치 검색을 통해서 대표적인 결합구성이나 예문을 구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 편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재 내에서의 어휘 제시 양상을 다룬 이유경(2018:289-292)에서는 ‘현대 교재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86년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대학 기관 교재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이전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의 비중이 커졌고 어휘를 교육 항목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별도로 연습할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어휘의 의미와 용법 제시 방법이 제한적이고, 목표 어휘의 생산적 사용을 위한 연습이 부족하며 목표 어휘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한국어 교재와 어휘를 연결하여 진행한 연구들을 주제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크게 특정 학습 목적이나 학습자의 국적을 위한 어휘 교재 개발 방안 연구와 이미 개발된 교재들의 어휘를 분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교재 개발 방안 연

구에는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이유경·최호철(2015)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요구 분석을 실시한 트란티반(2022) 등이 있다. 또한 기개발 교재의 분석 연구로는 한국어 고급 교재의 단원별 어휘량 및 어휘 반복도를 분석한 민경모(2014),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를 연구한 최지영(2016),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어휘를 연구한 이영주(201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한국어 교재의 어휘와 관련한 양적 연구들로는 이지환(2019)과 송찬우(2022)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들이다. 먼저 이지환(2019)은 미국 대학의 대표적 한국어 교재인 Integrated Korean의 초·중급 교재를 대상으로 어휘 분석을 수행한 후 교재 내 어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교재에 제시된 어휘가 교재의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는가를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송찬우(2022)에서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 중 특수목적 학습자인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재를 대상으로 어휘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들이 특정 시기 혹은 특정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들의 어휘적 특성을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살펴본 연구들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된 어휘들이 10년~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개정된 교재에서 어떠한 사용 양상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1.2.2. 말뭉치 기반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 말뭉치의 역사는 1986년 ‘연세 한국어 사전 편찬’ 프로젝트를 그 시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능한 한 사전에 실리는 모든 어휘에 대해 정확

한 언어학적 기술과 어원, 최초 사용 시기, 출전, 의미의 변천 과정 등을 풍부한 용례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 방법론의 도입과 함께 한국어 말뭉치의 구축이 물꼬를 텄으며, 이후 한국어 말뭉치 구축은 사전 편찬을 위한 활용 목적에만 그치지 않고 학술적인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김한샘, 2019:1-2).

사전 편찬에 필수적인 개념으로서 '뭉치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상섭(1989)[1] 이후 말뭉치에 기반한 언어 연구는 한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국어학자들의 말뭉치 이용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연구들은 남윤진·옥철영(1996)이나 차준경·강범모(2000)에서 보이듯이[2] 주로 말뭉치 구축을 위한 형태소 분석기 개발이나 말뭉치 구축 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 서상규(1998)는 사전 편찬을 위한 낱말 빈도 조사를 말뭉치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강현화(2000)에 이르러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말뭉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비롯되었다(신서인, 2019).[3]

본격적으로 말뭉치 연구 결과를 한국어 교재에 적용한 연구로는 김일환·이승연(201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초·중·고급 한국어 교재 29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 코퍼스를 기반으로 언어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어휘가 실제 한국어 사용 양상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1) 이상섭(1989)은 'Corpus Linguistics'가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전 편찬 프로젝트(코빌드 계획)와 더불어 널리 유포된 새로운 개념의 분야이며 본인이 1988년에 이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뭉치 언어학'이라고 옮겼음을 밝히고 있다.

2) 이들 초기 연구들이 게재된 학술지(한국정보과학회)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말뭉치 연구들은 주로 자연 언어처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말뭉치를 바탕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공학 연구자들이 형태소 분석기, 철자 검사기, 용례 검색기, 기계 번역기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말뭉치를 이용했던 것이다.

3) 강현화(2000)의 연구를 통해 말뭉치에 기반을 둔 한국어 교육 연구의 접점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해 말뭉치를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SJ-RIKS 코퍼스의 어휘 사용 양상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직관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어휘 사용에 대한 거시적인 사용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 이전에는 한국어 교재의 전체 어휘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강현화(2014)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 연구가 분석 교재의 수나 분석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1급~6급 교재를 갖춘 5개 대학 기관의 교재와 워크북에 사용된 어휘를 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숙달도별 교재의 평균 어휘량을 파악하였고 교재 어휘량과 토픽 어휘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학습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을 확인하는 등 한국어 교재의 어휘에서 보이는 양적 특성을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두 연구 후 등장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교육 연구들은 교육용 어휘 선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신혜(2019, 2021)에서는 특정 분야 전공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해 해당 전공 분야의 텍스트로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하고 중복도, 빈도, 대상의 숙달도를 고려하거나 특정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용 어휘를 제시하였다. 학습자 오류 분석을 위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로는 김보영(2021), 허지이 외(2021)가 있는데, 김보영(2021)에서는 학습자의 문·구어 말뭉치 자료에서의 표현 문형 오류 양상과 오류 층위별 특징을 담화 유형과 담화 장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허지이 외(2021)에서는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나는 추측 양태부사 ‘아마’와 ‘혹시’의 사용 양상과 오류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측 양태부사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말뭉치 기반 연구 결과가 한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 적용되어 그 성과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어 교재의 어휘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일환·이승연(2014)이나 강현화(2014)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주요 국내 대학 기관의 교재들이 2019년 이후 현대적 한국어 교재 개발 단계를 맞이하여 개정된 만큼 그 교재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양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3. 연구 문제

김일환·이승연(2014)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을 살펴본 이후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재들을 개발하였다. 2014년 당시 연구를 진행한 초점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을 경험적, 기술적, 계량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현시점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 기관별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이 어떠한가를 공시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종적인 사회 변화 양상이 교재 어휘 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최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총 24권의 '중급'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새로이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ew Korean Textbook Corpus, 이하 N-KTC)라고 칭하기로 하였다.[4] 이를 기반으로 신규 교재들에 수록된 어휘들의 특징을 분석한 후 앞서 김일환·이승연(2014)에서 구축한 한국어 교재 코퍼스(Korean Textbook Corpus, KTC)로부터 추출된 어휘 분석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어휘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4)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구축된 기존 한국어 교재 코퍼스(KTC)의 재구성과 새로운 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의 구체적인 구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뒤에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중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재와 신규 개발 교재의 어휘 수록 양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기존 KTC 말뭉치와 새로 구축한 N-KTC 말뭉치를 바탕으로 교재들의 어휘 유형(Type), 총 어휘 수(Token), 그리고 어휘적 다양도(TTR)를 분석한다.[5)]

둘째,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이 주요 어휘 범주들을 중심으로 즉,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의 범주에서 어떠한 통시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셋째, 새로이 출간된 기관별 교재 상호 간 주요 어휘 범주들의 분석을 통해 기관별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공시적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기존에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한 질적 연구의 주요 내용이 양적 연구 결과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가를 논의한다.

각 교육 기관의 교재 개발자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한국어 학습 주제와 기능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 어휘와 그 어휘들이 활용되는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해 객관적인 말뭉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시적, 공시적으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치우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교재 개발자들이 한국어 교재의 수정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5) ‘Type’, ‘Token’, ‘TTR’(Type/Token Ratio)를 각각 ‘유형’, ‘빈도’, ‘유형/빈도 비율’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김일환·이승연, 2014), ‘타입’, ‘토큰’, ‘타입/토큰 비율’(강현화, 2014)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의 경우 ‘빈도’는 ‘frequency’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뒤의 경우 매번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용어로서 각각 ‘어휘 유형(Type)’, ‘총 어휘 수(Token)’, ‘어휘적 다양도(TTR)’라고 칭하는 이지환(2019)를 따르기로 한다.

# 2. 한국어 교재의 종류와 변화 양상

## 2.1.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

한국어 교재는 전문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한국어 교육학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대적인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6]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기관과 정부 기관이 확대되었으며 한국어 교육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어 수요층이 증가하고 학습자의 국적이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법의 발달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교재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1)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2』, 고려대 한국어문화연수부(1991~1997)의 『한국어 회화 1~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93~1995)의 『한국어 1~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3~1994)의 『한국어 1~6』 등이 있다(김민경, 2023).

이후 30여 년간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30개의 국내 대학 기관이 자체적인 교재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개의 자체 교재가 있는 기관은 지역별로는 경기 2개소, 경남 1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3개소, 서울 16개소, 인천 1개소, 제주 1개소, 충남 3개소, 충북 1개소이다(원미진 외, 2020). 이러한 지역별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소재 대학 기관의 교재 개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김민경(2023)은 한국어 교재 개발의 역사를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눈 뒤, 이전을 '전통적 한국어 교재 개발' 시기로 이후를 '현대적 한국어 교재 개발' 시기로 칭하였다. 나아가 각 시기 내에서도 교재 개발의 목적 및 특징을 기준으로 각각 3기와 4기로 구분하였다.

<표 1> 서울 소재 대학 기관의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김민경 2023:249)

| 개발 기관명 | 교재명 | 출판연도 |
|---|---|---|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1-1~2-2, 3~6 | 2014~2017 |
| | 중국어로 쉽게 배우는 한국어 문법 초급 | 2016 |
| | 처음 만나는 한국어 | 2018 |
| | 함께 하는 건국 한국어 1 | 2020 |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경희 한국어 듣기/읽기/말하기 1~6 | 2014~2015 |
| | 경희대 한국어 1~4 | 2017 |
| | 경희 한국어 첫걸음 | 2019 |
| | 경희 한국어(문법) 초급1~고급2 | 2019~2020 |
| | 경희 한국어(듣고 말하기/읽고 쓰기) 초급1~고급2 | 2019~2020 |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 재미있는 한국어 1~6 | 2008~2010 |
| | 술술 한국어 | 2015 |
| | 고려대 한국어 1A~4B | 2019~2021 |
|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1~4 | 2019~2021 |
| 국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 국민한국어 1-1~4-2 | 2012 |
| | (개정) 국민한국어 1-1~4-2 | 2019~2022 |
|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 함께 배워요 한국어 1~6 | 2009~2015 |
| | 함께 배워요 한국어 1A~6B | 2016~2019 |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 Master Korean 1-1~5 | 2013 |
| | 문화로 읽는 한국어 읽기 1~6 | 2019 |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서강 한국어 1~4 | 2004 |
| | New 서강 한국어 Student book 1A~5B | 2007~2011 |
| | 서강 한국어 1, 2 compact series | 2012~2013 |
| | New 서강한국어 읽기 6 | 2014 |
| | New 서강한국어 말하기 6 | 2015 |
|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 Active Korean 1~4 | 2006 |
| | Arirang Korean Basics 1, 2 | 2006 |
| | 서울대 한국어 1A~6B | 2013~2015 |

| 개발 기관명 | 교재명 | 출판연도 |
|---|---|---|
| | 사랑해요 한국어 1~4 | 2019 |
| |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1A~2A | 2022 |
|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 2006 |
| | 말하기 쉬운 한국어 1~12 | 2005~2010 |
| | 성균 한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1~4 | 2018~2019 |
| | 성균 한국어(어휘, 문법) 1~6 | 2018~2019 |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100시간 한국어 | 2004 |
| | 한자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1, 2 | 2006 |
| | 연세한국어 읽기 1~6 | 2007 |
| | 한달 완성 한국어(듣기/말하기/쓰기) 중급 1, 2 | 2008 |
| | 연세한국어 1-1~6-2 | 2013 |
| | 3주 완성 연세한국어 1~8 | 2013 |
| |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1~6-2 | 2018~2021 |
| | 새 연세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1-1~6-2 | 2019~2022 |
| |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1~6-2 | 2019~2022 |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이화 한국어 1-1~6 | 2010~2012 |
| | 에센스 이화 한국어 1A~2C | 2017 |
| 중앙대학교 국제교육팀 |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1상~4하 | 2018 |
| |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문법 5, 6 | 2019 |
| |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듣기 말하기 5, 6 | 2019~2020 |
| |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읽기 쓰기 5, 6 | 2019~2020 |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1~6 | 2016 |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림어학당 | 한림 한국어 | 2018 |
|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 한양 한국어 1~6 | 2008~2014 |
| | 빨리 배우는 한국어 1,2 | 2013 |
| | 한양 한국어 1-1~6-2 | 2018~2021 |
| 홍익대학교 | 한국어를 만나다(한국어 문법1/활동1) | 2015 |

| 개발 기관명 | 교재명 | 출판연도 |
|---|---|---|
| 국제언어교육원 | 한국어와 놀다(한국어 활동2) | 2015 |
| | 홍익 한국어 1A~4B | 2019 |

이와 같은 교재 개발 현황을 국내의 지방 교육 기관은 물론 해외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교재까지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서울 소재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되고 다수의 학습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교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7)]

## 2.2.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변화'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교재의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달라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들도 이처럼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재의 '외적 구성'은 교재의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분권 수와 디자인, 부록 구성, 보조 자료 제공 등을 다루고, '내적 구성'은 교재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단원 설계와 교수 요목 선정 등을 다룬다(김민경 2023:252). 더 나아가 교재의 변화를 분석하는 기준으로서 내적 구성과 외적 구성 이외에도 새로운 교재 개발의 주체나 대상 학습자의 특징 등 교재 개발의 배경이나 상황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최은규, 2020:156).

교재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따라 기존 한국어 교재와 새로이 출간된

7) 분석 대상 교재에 대해서는 3.2장에서 논의한다.

교재간 외적/내적 구성 변화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 외적 구성의 변화 >

1. 등급별 교재 구성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
2. 문자보다 이미지를 선호하고 심미적 요인을 강조하여 외적 매력도를 높임
3. CD 대신 교재에 QR을 삽입하여 간편화
4. 교재 등장인물은 실제 학습자와 주변 인물의 특성을 반영
5. 단원 수의 경량화(고려대, 국립국어원) 및 증가(연세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반된 경향성

< 내적 구성의 변화 >

1. 교수·학습 이론 관점에서 고려대 교재(형태를 고려한 과제 중심 접근 방법)를 제외하고는 주제·기능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기존 방식 유지
2. 단원 구성과 교육 항목은 각 기관 교재별로 다양한 변화를 추구
3. **문법·발음·어휘 항목의 경량화**

이처럼 최근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들이 분권을 통해 교재의 무게를 줄여 편의성을 높이거나,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고급화하고, QR 코드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 등은 외적 구성의 긍정적 변화 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내적 구성의 변화, 특히 교재별로 이전 교재와 비교하여 단원 구성이나 교육 항목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확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효과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

8) 가장 최근에 기관별 교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향후 한국어 교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김민경(2023)의 논의를 일부 정리하였다. 다만, 김민경의 논의에서는 주로 형태적이고 내용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또한 3개 기관(고려대, 연세대, 국립국어원)의 교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분석 방법 및 대상 교재들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재 변화 양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원 구성이나 교육 항목의 규모는 각 교재가 예정하고 있는 교육 시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에 따른 피드백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항목이나 어휘 항목(또는 어휘장)의 숫자가 줄어든 변화에 대해 과연 새로운 교재들의 내적 구성, 특히 어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량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양적 결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전 교재들과 비교하여 새로운 교재들에서 어휘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나 어휘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전체 교재를 망라한 어휘의 총량이 그에 따라 줄어들었는지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3.1 코퍼스 분석 방법

### 3.1.1. 형태 분석과 태깅(tagging)

어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할 때에는 형태 분석 정보가 들어 있는 형태 분석 코퍼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단 텍스트 입력을 통해 원시 코퍼스가 구축되고 난 후에 형태 분석, 오류 수정, 주석 작업 등 어느 단계까지 분석과 수정을 수행해야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담고 있는 문법에 대한 분석이나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재의 어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형태소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 지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 지침이다. 이 지침은 국내의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 과정에 두루 활용되고 있을 만큼 표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분석 표지(tag-set)는 일부 표지를 제외하고는 여러 형태 분석 말뭉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말뭉치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다(김일환, 2019).

N-KTC에 형태 정보를 부착하는 과정에는 높은 분석 정확률을 갖춘 KMAT를 활용하였다.[10] <그림 1>은 형태 분석 정보가 부착된 N-KTC의 일부를 예로 제

9) 예를 들어 김한샘(2017)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형태 주석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면서 “원시 말뭉치 자체만으로도 언어 현상의 관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뭉치는 형태, 구문, 의미 등과 같은 언어학적 분석 결과가 포함된 주석 말뭉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10) KMAT(Korean Morphological Analyzer and Tagger)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이도길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 <물결21> 코퍼스 구축 등에도 활용된 바 있다. 특히 김일환·이승연(2014)에서도 이 분석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시한 것이다.

| | | |
|---|---|---|
| new_KO_all2_00001 | 유진 | 유진/NNP |
| new_KO_all2_00002 | 씨가 | 씨/NNB+가/JKS |
| new_KO_all2_00003 | 다음 | 다음/NNG |
| new_KO_all2_00004 | 주에 | 주/NNG+에/JKB |
| new_KO_all2_00005 | 결혼한대요. | 결혼/NNG+하/XSV+ㄴ대요/EM+./SF |
| new_KO_all2_00006 | 남 | 남/NNG |
| new_KO_all2_00007 | 그래요? | 그렇/VA+어요/EM+?/SF |
| new_KO_all2_00008 | 결혼하는구나. | 결혼/NNG+하/XSV+는구나/EM+./SF |
| new_KO_all2_00009 | 근데 | 근데/MAJ |
| new_KO_all2_00010 | 왜 | 왜/MAG |
| new_KO_all2_00011 | 회사 | 회사/NNG |
| new_KO_all2_00012 | 사람들한테 | 사람/NNG+들/XSN+한테/JKB |
| new_KO_all2_00013 | 연락 | 연락/NNG |
| new_KO_all2_00014 | 안 | 안/MAG |
| new_KO_all2_00015 | 했대요? | 하/VV+았/EP+대요/EM+?/SF |
| new_KO_all2_00016 | 여 | 여/NNG |
| new_KO_all2_00017 | 지인들 | 지인/NNG+들/XSN |
| new_KO_all2_00018 | 초대는 | 초대/NNG+는/JX |
| new_KO_all2_00019 | 거의 | 거의/MAG |
| new_KO_all2_00020 | 안 | 안/MAG |
| new_KO_all2_00021 | 하고 | 하/VV+고/EM |
| new_KO_all2_00022 | 가족끼리만 | 가족/NNG+끼리/XSN+만/JX |
| new_KO_all2_00023 | 작게 | 작/VA+게/EM |
| new_KO_all2_00024 | 할 | 하/VX+ㄹ/ETM |
| new_KO_all2_00025 | 거래요. | 거/NNB+이/VCP+래요/EM+./SF |

<그림 1> 개정 중급 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의 형태 분석 결과 예시

신규 교재의 어휘 사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코퍼스를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각 기관에서 출판된 한국어 중급 교재의 텍스트들을 모두 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재 내에서 반복되는 지시문이나 숫자 표시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력하지 않았다. 반면, 최근 교재 구성에서 삽화나 일러스트레이션 등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비록 활자로 구성된 텍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삽화 등에 어휘가 명확히 표

시되었을 경우 이를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 '방 구하기' 단원에서 'OO공인중개사 사무소' 입구를 보여주는 그림 속에 '보증금 XX 만원, 월세 XX 만원, XX역으로부터 10분 거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텍스트로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KMAT를 이용하여 입력된 전체 텍스트에 대해 형태소 정보를 일괄적으로 부착하였다. 한국어 교재 텍스트는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이 정확하고 특이한 어절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 3.1.2. t-점수를 이용한 상대적 고빈도 어휘의 도출

개별 교재에 특정한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그러한 어휘들이 해당 교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어휘가 단순히 고빈도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어휘들이 해당 교재의 주제를 특징짓거나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까? 구축된 코퍼스로부터 자주 등장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산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X2 기법, DF 기법, z-점수, MI(Mutual Information), 로그우도비(Log-likelihood ration), 카이제곱(Chi-square) 검증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주로 키워드나 주제어를 추출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이 있어 왔다(신성윤·이양원, 2009).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 코퍼스 사이의 어휘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t-점수(t score)를 도입하였다. t-점수는 특정 어휘가 일정한 문서 집합에서 단순히 여러 번 노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휘가 해당 문서 집합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정 어휘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문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빈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일환·이도길(2011:151)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해당 주제의 문서에 자주 사용되고 다른 주제의 문서에서는 적게 사용될수록 그 단어의 키워드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때 키워드성을 측정하기 위한 t-점수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즉, t-점수는 기본적으로 목표 어휘의 빈도를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특정 문서 집단에서 목표 어휘가 보여지는 빈도(관측 빈도)와 다른 문서에서 목표 어휘가 (평균적으로) 노출되리라고 예측되는 빈도(예상 빈도)의 차이가 클수록 t-점수가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어휘의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텍스트의 키워드 또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 집단의 주제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어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t-점수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 문서 집합 D와 이에 비교 대상이 되는 문서 집합 C가 주어졌을 때, 문서 집합 D에서 특정 어휘 w의 키워드성 측정값 t는,

$$t = \frac{O - E}{\sqrt{O}}$$

이때, O는 관측 빈도로서 문서 집합 D에서 특정 어휘 w가 나타난 빈도 $f_D(w)$이고 E는 예상 빈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E = \frac{|D| \times f_c(W)}{|C|}$$

$|D|$와 $|C|$는 각각 문서 집합 D와 C의 크기 즉, 해당 문서 집합에 포함된 총 어휘의 수를 의미한다. 예상 빈도는 비교 대상 문서 집합에서의 어휘 w의 빈도를 두 문서 집합의 크기로 정규화한 값이다.

<그림 2> t-점수 산출 방식

11) t-점수의 의미와 구체적인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김일환·이도길(2011) 151~155쪽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어휘가 가지는 t-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목표 어휘의 빈도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교재에 공통으로 사용된 어휘 중 신규 교재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내 주는 어휘들을 찾아내어 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t-점수를 통한 고빈도 어휘 추출에 따른 교재별 특성 분석은 우선 교재별 어휘 유형과 총 어휘수, 어휘적 다양도를 중심으로 한 1차적 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진행하게 될 것이다.

## 3.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코퍼스는 기존의 주요 한국어 교재를 포괄하여 구축한 KTC, 그리고 이로부터 중급 교재만을 분리하여 새로이 구축하게 되는 O-KTC와 신규 중급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N-KTC로 구성될 것이다. N-KTC는 최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총 24권의 '중급'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구성한 자료로, 기존 자료들과의 구별을 위해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ew Korean Textbook Corpus)라고 칭하였다.

### 3.2.1. 한국어 교재 코퍼스(KTC)와 (구)한국어 교재 코퍼스(O-KTC)

앞서 김일환·이승연(2014)에서 구축한 한국어 교재 코퍼스(Korean Textbook Corpus, KTC)는 6개 기관의 초급, 중급, 고급 교재 총 29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하고 균형 잡힌 전체 교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말해 KTC에서 대상으로 삼은 29권 교재의 개정판 내용을 모두 수록한 새로운 코퍼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전 KTC의 구축 대상이었던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6개 기관의 교재 중 이화여대 교재는 2023년 현재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강대 교재의 경우에는 일부만 개정하는 수준으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위 기관 교재들 중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4개 기관의 교재를 대상으로 N-KTC를 구축하였으며, 나아가 균형 있는 비교 분석을 위해 기존 KTC에서 이화여대, 서강대 교재를 제외한 4개 기관의 코퍼스를 재추출하여 (구)한국어 교재 코퍼스(Old Korean Textbook Corpus, 이하 O-KTC)를 구축하였다.[12] 그 중에서 먼저 KTC 목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KTC(한국어 교재 코퍼스)의 구성

| 번호 | 기호 | 출판사(기관) | 등급 | 출판연도 | 어절 수 | 등급 합계 |
|---|---|---|---|---|---|---|
| 1 | A1 | 경희대 출판부 | 초급 | 2004 | 4,897 | 15,422 |
| 2 | A2 | | 초급 | 2004 | 10,525 | |
| 3 | B1 | 교보문고(고려대) | 초급 | 2010 | 10,890 | 27,799 |
| 4 | B2 | | 초급 | 2010 | 16,909 | |
| 5 | C1 | 하우 출판사(서강대) | 초급 | 2008 | 4,000 | 9,762 |
| 6 | C2 | | 초급 | 2008 | 5,762 | |
| 7 | D1 | 연세대 출판부 | 초급 | 2009 | 3,802 | 25,854 |
| 8 | D2 | | 초급 | 2009 | 6,871 | |
| 9 | D3 | | 초급 | 2009 | 15,181 | |
| 10 | E1 | 이화여대 출판부 | 초급 | 2009 | 7,556 | 22,191 |
| 11 | E2 | | 초급 | 2009 | 14,635 | |
| 12 | A3 | 경희대 출판부 | 중급 | 2002 | 12,705 | 24,793 |
| 13 | A4 | | 중급 | 2002 | 12,008 | |
| 14 | B3 | 교보문고(고려대) | 중급 | 2010 | 22,879 | 51,446 |
| 15 | B4 | | 중급 | 2010 | 28,567 | |
| 16 | C3 | 하우 출판사(서강대) | 중급 | 2008 | 19,796 | 50,512 |
| 17 | C4 | | 중급 | 2009 | 14,309 | |
| 18 | C5 | | 중급 | 2009 | 16,434 | |
| 19 | D4 | 연세대 출판부 | 중급 | 2008 | 23,896 | 60,360 |

12) 기존 교재 코퍼스로부터 새로이 추출해 낸 코퍼스는 (구) 한국어 (중급) 교재 코퍼스(Old Intermediate Korean Textbook Corpus, OIKTC)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후술하는 N-KTC와의 균형이나 간략성을 위해 O-KTC라고 표현하였다.

| 번호 | 기호 | 출판사(기관) | 등급 | 출판연도 | 어절 수 | 등급 합계 |
|---|---|---|---|---|---|---|
| 20 | D5 | | 중급 | 2008 | 36,464 | |
| 21 | E3 | 이화여대 출판부 | 중급 | 2009 | 18,208 | 30,689 |
| 22 | E4 | | 중급 | 2009 | 12,481 | |
| 23 | F3 | 서울대 출판부 | 중급 | 2000 | 20,663 | 44,211 |
| 24 | F4 | | 중급 | 2000 | 23,548 | |
| 25 | A5 | 경희대 출판부 | 고급 | 2002 | 22,148 | 22,148 |
| 26 | B5 | 교보문고(고려대) | 고급 | 2010 | 23,893 | 23,893 |
| 27 | C6 | 하우 출판사(서강대) | 고급 | 2009 | 16,581 | 33,974 |
| 28 | C7 | | 고급 | 2009 | 17,393 | |
| 29 | D6 | 연세대 출판부 | 고급 | 2008 | 31,041 | 31,041 |
| **합 계** | | | | | **474,095** | |

이전에 구축된 한국어 교재 코퍼스는 5개 주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 기관의 등급별 교재 중 초급 교재가 없는 경우(서울대)가 있었으며, 고급 교재가 없는 경우(서울대, 이화여대)도 있었다. 어절 규모면에서는 같은 등급 내의 교재라 하더라도 기관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려대 초급 교재(27,799 어절)는 서강대 초급 교재(9,762 어절)에 비해 약 3배에 가까운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연구 과제로 삼고 있는 중급 교재의 경우, 위에 언급한 각 기관 전체에서 출간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규모 면에서도 초급과 고급을 합한 것(212,084 어절)보다 중급 단독으로 더 큰 규모(262,011 어절)를 나타냄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급 한국어 교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 코퍼스(KTC)로부터 기관별 중급 교재를 분리하여 새로운 코퍼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4개 기관의 중급 교재 8권으로 구성된 비교 대상 코퍼스인 (구)한국어 교재 코퍼스(O-KTC)가 만들어졌다.

<표 3> O-KTC((구)한국어 교재 코퍼스)의 구성

| 번호 | 기호 | 출판사(기관) | 등급 | 출판연도 | 어절 수 | 등급 합계 |
|---|---|---|---|---|---|---|
| 1 | A3 | 경희대 출판부 | 중급 | 2002 | 12,705 | 24,793 |
| 2 | A4 | | 중급 | 2002 | 12,088 | |
| 3 | B3 | 교보문고(고려대) | 중급 | 2010 | 22,879 | 51,446 |
| 4 | B4 | | 중급 | 2010 | 28,567 | |
| 5 | F3 | 서울대 출판부 | 중급 | 2000 | 20,663 | 44,211 |
| 6 | F4 | | 중급 | 2000 | 23,548 | |
| 7 | D4 | 연세대 출판부 | 중급 | 2008 | 23,896 | 60,360 |
| 8 | D5 | | 중급 | 2008 | 36,464 | |
| **합 계** | | | | | **180,810** | |

어절 수를 놓고 볼 때, O-KTC는 180,810 어절로서 KTC에서 구축한 중급 교재의 262,011어절의 규모보다 일정 부분 축소되었다. 코퍼스의 전체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은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관점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신·구 교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조군과 비교군이 형태적으로 최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면에서 불가피한 처리였음을 밝혀 둔다.[13)]

### 3.2.2.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

최근 국내 주요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거쳐 새로이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였다. 경희대와 서울대의 경우 각각 2000년, 2002년 이후 약 20여 년 만에 중급 교재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고려대와 연세대도 약 10여 년 만에 새로이 교재 개편을 마무리하였다. 교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 교재들과 달리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교재를 제외하고는 각 언어

13) 본 연구 이후에 O-KTC에서 제외된 기관의 한국어 중급 교재 개정 출판이 완료된다면 더 많은 어절이 포함된 이전의 KTC 구축 자료가 다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별로 교재를 분권하여 개발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규 개발 교재 중에서 중급 교재만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관 중 고급 교재까지 신규 개발이 완료된 기관은 2개 기관으로 나머지 2개 기관은 고급 교재가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중급 교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초급의 경우에는 분석 대상 4개 기관 모두 신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KTC에 포함된 어휘 수량을 볼 때 비슷한 권수임에도 불구하고 중급 교재의 분량이 초급에 비해 거의 2배를[14]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내 어휘 변화의 경향성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중급 교재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한국어 교재의 코퍼스 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분석의 틀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놓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급 교재에 대칭되도록 기존 코퍼스로부터 중급 교재 코퍼스만을 별도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편리성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의 중급 한국어 교재 목록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기관별 한국어 교재(중급) 목록

| 번호 | 기호 | 교재명 | 등급 | 기관(출판사) | 출판연도 |
|---|---|---|---|---|---|
| 1 | A 1 | 경희 한국어 듣고 말하기 중급 1 | 중급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한국어 교재편찬위원회) | 2020 |
| 2 | A 2 | 경희 한국어 읽고 쓰기 중급 1 | 중급 | | 2021 |
| 3 | A 3 | 경희 한국어 듣고 말하기 중급 2 | 중급 | | 2021 |
| 4 | A 4 | 경희 한국어 읽고 쓰기 중급 2 | 중급 | | 2021 |
| 5 | B 1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듣기 3 | 중급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고려대학교 | 2020 |
| 6 | B 2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말하기 3 | 중급 | | 2020 |
| 7 | B 3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읽기 3 | 중급 | | 2020 |

14) 김일환·이승연(2014)에서는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 중 5곳에서 출판한 교재 총 29권(초급 11권, 중급 13권, 고급 5권)을 대상으로 KTC를 구축하였으며, 어절은 초·중·고급 교재 각각에서 101,028 어절, 262,011 어절, 111,056 어절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번호 | 기호 | 교재명 | 등급 | 기관(출판사) | 출판연도 |
|---|---|---|---|---|---|
| 8 | B 4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쓰기 3 | 중급 | 출판문화원) | 2020 |
| 9 | B 5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듣기 4 | 중급 | | 2021 |
| 10 | B 6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말하기 4 | 중급 | | 2021 |
| 11 | B 7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읽기 4 | 중급 | | 2021 |
| 12 | B 8 |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쓰기 4 | 중급 | | 2021 |
| 13 | C 1 |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3A | 중급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023 |
| 14 | C 2 |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3B | 중급 | | 2023 |
| 15 | C 3 |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4A | 중급 | | 2023 |
| 16 | C 4 |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4B | 중급 | | 2023 |
| 17 | D 1 | 새 연세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3-1 | 중급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2019 |
| 18 | D 2 | 새 연세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3-2 | 중급 | | 2019 |
| 19 | D 3 |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3-1 | 중급 | | 2019 |
| 20 | D 4 |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3-2 | 중급 | | 2019 |
| 21 | D 5 | 새 연세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4-1 | 중급 | | 2020 |
| 22 | D 6 | 새 연세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4-2 | 중급 | | 2020 |
| 23 | D 7 |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4-1 | 중급 | | 2020 |
| 24 | D 8 |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4-2 | 중급 | | 2020 |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는 4개 기관에서 출판된 한국어 중급 교재 총 24권으로 구축되었다. 총 규모는 265,055 어절로서 기존의 중급 교재 코퍼스(O-KTC)의 195,969어절에 비해 69,086어절(35.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분석 대상 주요 4개 기관의 중급 교재 구성이 이전에는 기관별로 2권씩 총 8권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총 24권으로 늘어난 점도 어절 규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경희대와 서울대의 중급 교재가 각각 4권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어절 규모면에서는 각 권당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중급 교재를 각각

15) 기존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KTC에 포함된 연세대학교 중급 교재의 경우 총 어절 수를 60,360개로 표기하고 있으나, O-KTC 구축 과정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75,523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O-KTC의 총 어절 수를 위 <표 3>에서와 달리 195,969로 정정하였다.

8권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양적인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N-KTC 구축 대상 교재들의 구체적인 어절 수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 규모

| 파일명 | 기호 | 기관(출판사) | 출판연도 | 어절 수 | 등급 합계 |
|---|---|---|---|---|---|
| KH_I0001 | A 1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한국어 교재편찬위원회) | 2020 | 10,659 | 45,421 |
| KH_I0002 | A 2 | | 2021 | 10,843 | |
| KH_I0003 | A 3 | | 2021 | 10,541 | |
| KH_I0004 | A 4 | | 2021 | 13,378 | |
| KO_I0001 | B 1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2020 | 6,227 | 41,205 |
| KO_I0002 | B 2 | | 2020 | 3,414 | |
| KO_I0003 | B 3 | | 2020 | 5,425 | |
| KO_I0004 | B 4 | | 2020 | 2,058 | |
| KO_I0005 | B 5 | | 2021 | 9,552 | |
| KO_I0006 | B 6 | | 2021 | 3,149 | |
| KO_I0007 | B 7 | | 2021 | 8,667 | |
| KO_I0008 | B 8 | | 2021 | 2,713 | |
| SN_I0001 | C 1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023 | 18,790 | 73,626 |
| SN_I0002 | C 2 | | 2023 | 16,477 | |
| SN_I0003 | C 3 | | 2023 | 19,932 | |
| SN_I0004 | C 4 | | 2023 | 18,427 | |
| YS_I0001 | D 1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2019 | 9,999 | 104,803 |
| YS_I0002 | D 2 | | 2019 | 10,709 | |
| YS_I0003 | D 3 | | 2019 | 12,845 | |
| YS_I0004 | D 4 | | 2019 | 13,158 | |
| YS_I0005 | D 5 | | 2020 | 10,373 | |
| YS_I0006 | D 6 | | 2020 | 11,296 | |
| YS_I0007 | D 7 | | 2020 | 17,787 | |
| YS_I0008 | D 8 | | 2020 | 18,636 | |
| **합 계** | | | | **265,055** | |

이처럼 새로운 교재 코퍼스를 구축하여 기존 교재 코퍼스와의 양적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이 각 기관별로 중급 교재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6> 각 기관별 신-구 교재의 코퍼스 규모

| 경희대 | | 고려대 | | 서울대 | | 연세대 | |
|---|---|---|---|---|---|---|---|
| 기존교재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신규교재 |
| 24,793 | 45,421 | 51,442 | 41,205 | 44,211 | 73,626 | 75,523 | 104,803 |
| ▲ 20,628(83%↑) | | ▽ 10,237(20%↓) | | ▲ 29,415(67%↑) | | ▲ 29,280(39%↑) | |

기존 교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학교 교재의 어절 규모는 증가하였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전체 교재 중 가장 큰 규모(104,803어절)로 중급 교재를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교재를 개편하면서 그 규모를 더욱 큰 폭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교재의 경우 기존 교재에서는 어절 수 면에서 고려대 교재보다 규모가 작았으나 신규 교재(73,626 어절)의 경우에는 고려대 교재(41,205 어절)보다 두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희대 교재는 어절 규모만 놓고 볼 때 서울대나 연세대 교재에 비해 여전히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개정 전 교재에 비해 비율 면에서 가장 큰 증가폭(83%↑)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고려대 교재는 오히려 기존보다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51,442→41,205 어절)에서 다른 학교 교재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는 '외적 구성'이나 '내적 구성'을 기준으로 교재의 변화를 분석한 후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재들이 '세분화 및 경량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부의 논의가 고려대 교재의 경우에만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6)]

16) 김민경(2023)의 논의는 교재 분석의 방법 및 틀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신구 교재들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교재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경향성을 '경량화와 세분화'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진행한 계량적 분석에 따르

# 4. 중급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분석

## 4.1. 주요 어휘 범주의 사용 빈도

교재의 텍스트 입력과 형태 분석 작업을 진행한 후, 기관별 한국어 교재들은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개별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체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N-KTC에는 O-KTC와 비교할 때 어떠한 어휘들이 더 나타났고(어휘 유형), 이러한 어휘들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으며(총 어휘 수) 그에 따라 각 교재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어휘적 다양도)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N-KTC에 대한 형태 분석을 통해 주요 어휘인 일반명사(NNG), 동사(VV), 형용사(VA), 일반부사(MAG)만을 추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은 통계 수치로 나타냈다.

<표 7> 주요 어휘 범주의 어휘 유형, 총 어휘수, 어휘적 다양도 비교

| 어휘 범주 | O-KTC | | | N-KTC | | |
|---|---|---|---|---|---|---|
| | 어휘 유형 (Type) | 총 어휘 수 (Token) | 어휘적 다양도 (TTR) | 어휘 유형 (Type) | 총 어휘 수 (Token) | 어휘적 다양도 (TTR) |
| NNG(일반명사) | 11,119 | 76,215 | 0.146 | 12,701 | 123,146 | 0.103 |
| VV(동사) | 3,317 | 44,405 | 0.075 | 2,196 | 49,252 | 0.045 |
| VA(형용사) | 1,138 | 14,500 | 0.078 | 990 | 15,088 | 0.066 |
| MAG(일반부사) | 1,039 | 14,263 | 0.073 | 1,015 | 14,056 | 0.072 |
| 합 계 | 16,613 | 149,383 | 0.111 | 16,902 | 201,542 | 0.084 |

면 '어휘'의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에 의하면, 어휘 유형만 고려할 경우 품사별로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전 교재와 신규 교재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반해 빈도를 보여주는 총 어휘 수는 149,383개에서 201,542개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약 35%). 이는 특정 어휘들이 이전 교재에서보다 더욱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어휘적 다양도는 신규 교재에서 약 8%로 낮아졌다. 특히 다른 어휘들과 비교해 볼 때 일반명사의 어휘적 다양도가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신규 교재 개발자들이 학습자에게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기보다는 앞 단원에서 또는 단원 내에서 이전에 학습한 어휘를 반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배치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볼 경우, 학습자들이 새롭게 습득할 수 있는 어휘 유형의 비중이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폭은 다소 작지만,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 4.2.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의 통시적 비교

이 부분에서는 N-KTC 구축을 통해 살펴본 중급 교재들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주요 어휘 범주로는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 네 개 범주를 선정하였으며, 교재별로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부터 <표 11>까지와 같다.

<표 8> 경희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경희대 | Type | | Token | | TTR | |
|---|---|---|---|---|---|---|
|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 NNG(일반명사) | 2,331 | 2,851 | 11,539 | 22,784 | 0.202 | 0.125 |
| VV(동사) | 505 | 505 | 4,918 | 8,274 | 0.103 | 0.061 |
| VA(형용사) | 212 | 225 | 1,728 | 2,214 | 0.123 | 0.102 |
| MAG(일반부사) | 230 | 205 | 1,827 | 1,735 | 0.126 | 0.118 |
| 합 계 | 3,278 | 3,786 | 20,012 | 35,007 | 0.164 | 0.108 |

경희대 교재의 경우 주요 어휘의 유형(Type)과 총 어휘 수(Token)는 각각 약 15%, 75% 증가하였다. 주요 어휘 중 다른 항목들은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이 일반명사 어휘의 규모만 500여 개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전체 어휘 유형이 증가한 숫자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 어휘 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 교재의 어휘적 다양도(TTR)는 기존 교재에 비해 약 6%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9> 고려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고려대 | Type | | Token | | TTR | |
|---|---|---|---|---|---|---|
|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 NNG(일반명사) | 2,740 | 2,981 | 17,262 | 18,837 | 0.159 | 0.158 |
| VV(동사) | 1,089 | 493 | 11,599 | 7,571 | 0.094 | 0.065 |
| VA(형용사) | 342 | 246 | 3,352 | 2,207 | 0.102 | 0.111 |
| MAG(일반부사) | 261 | 265 | 3,102 | 2,308 | 0.084 | 0.115 |
| 합 계 | 4,432 | 3,985 | 35,315 | 30,923 | 0.125 | 0.129 |

고려대 신규 교재에 수록된 어휘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어휘 중 일반명사 항목의 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교재와 비교하면 전체 어휘 유형 규모가 약 450여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어휘 중 특히 동사나 형용사의 어휘 유형 규모가 매우 작아진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총 어휘

수도 약 4,000여 개 이상 줄어들었으나 어휘적 다양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약 12% 선을 유지하여 이전 교재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표 10> 서울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서울대 | Type | | Token | | TTR | |
|---|---|---|---|---|---|---|
|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 NNG(일반명사) | 2,314 | 3,078 | 17,977 | 33,399 | 0.129 | 0.092 |
| VV(동사) | 591 | 595 | 9,437 | 13,331 | 0.063 | 0.045 |
| VA(형용사) | 225 | 262 | 3,219 | 4,209 | 0.070 | 0.062 |
| MAG(일반부사) | 260 | 267 | 3,734 | 4,058 | 0.070 | 0.066 |
| 합 계 | 3,390 | 4,202 | 34,367 | 54,997 | 0.099 | 0.076 |

O-KTC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의 기존 교재는 분석 대상 교재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어휘 유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신규 교재에서는 어휘 유형과 총 어휘수 규모가 각각 약 24%, 60%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휘 규모 면에서는 연세대 교재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사나 형용사, 일반부사의 숫자상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명사 어휘 유형의 증가 폭이 전체 어휘량 변동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휘 유형의 증가 폭 이상으로 총 어휘 수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어휘적 다양도는 약 2.3%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세대학교 중급 교재의 주요 어휘 범주 통계 정보

| 연세대 | Type | | Token | | TTR | |
|---|---|---|---|---|---|---|
|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 NNG(일반명사) | 3,734 | 3,791 | 29,437 | 48,126 | 0.127 | 0.079 |
| VV(동사) | 1,132 | 603 | 18,451 | 20,076 | 0.061 | 0.030 |
| VA(형용사) | 359 | 257 | 6,201 | 6,458 | 0.058 | 0.040 |
| MAG(일반부사) | 288 | 278 | 5,600 | 5,955 | 0.051 | 0.047 |
| 합 계 | 5,513 | 4,929 | 59,689 | 80,615 | 0.092 | 0.061 |

연세대 교재는 분석 대상 기존 교재들 중 수록 어휘의 측면에서 원래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분석 결과, 연세대 신규 교재의 어휘 유형 규모는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명사 항목들은 다른 세 기관의 신규 교재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세대 교재의 경우에는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동사와 형용사의 어휘 유형은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동사의 경우 약 530여 개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전체 규모 축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총 어휘 수는 이전 교재 대비 약 35%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세대의 이전 교재가 이미 가장 큰 규모의 총 어휘 수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어휘 유형은 줄어들고 반대로 총 어휘 수는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인 교재의 어휘적 다양도는 약 6%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체 네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위 결과들을 토대로 분석 대상 기관들의 신규 교재가 담고 있는 어휘의 양적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어휘 유형의 측면에서 고려대, 연세대 교재의 경우에는 이전 교재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희대와 서울대 교재의 경우, 이전에 비해 신규 교재에 수록된 어휘 유형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대 교재의 어휘 유형 규모는 3,390개에서 4,202개로 큰 폭(23.95%)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어휘적 다양도 측면을 분석한 결과, 경희대나 고려대 교재의 경우에는 TTR 값이 10% 초중반 내외로 이전 교재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대와 연세대 교재의 경우, 기존 교재의 어휘적 다양도 값이 9% 내외로 이미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재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더 낮아졌다(서울대 7.6%, 연세대 6.1%). 이는 어휘 유형의 총량이 많더라도 일정한 어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주요 품사별로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 4.2.1. 일반명사

신규 교재의 어휘들이 이전 교재와 대비하여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새롭게 구축된 신규 교재 코퍼스 내에서 품사별 특징이 전반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반명사의 경우 어휘 유형(Type)의 수가 이전 교재들에 비해 약 1,5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사나 형용사, 일반부사를 포함한 주요 어휘 범주 중에서 일반명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기존 교재 67%에서 신규 교재 75%로 매우 높아졌다.

분석 대상인 4개 기관의 교재에 사용된 일반명사 중 종합 빈도가 높은 것부터 상위 50개를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기관별 중급 교재의 일반명사 상위 빈도 50개

| 상위 | 일반명사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1 | 때 | 261 | 202 | 382 | 750 | 1595 |
| 2 | 생각 | 132 | 244 | 325 | 553 | 1254 |
| 3 | 일 | 96 | 123 | 307 | 604 | 1130 |
| 4 | 시간 | 128 | 95 | 199 | 552 | 974 |
| 5 | 음식 | 141 | 123 | 266 | 312 | 842 |
| 6 | 남 | 0 | 364 | 311 | 71 | 746 |
| 7 | 집 | 74 | 96 | 149 | 357 | 676 |
| 8 | 방법 | 131 | 63 | 162 | 268 | 624 |
| 9 | 생활 | 119 | 82 | 127 | 266 | 594 |
| 10 | 사용 | 59 | 92 | 136 | 269 | 556 |
| 11 | 여행 | 121 | 36 | 136 | 250 | 543 |
| 12 | 준비 | 38 | 37 | 175 | 278 | 528 |
| 13 | 소개 | 83 | 95 | 137 | 186 | 501 |
| 14 | 자신 | 147 | 41 | 88 | 185 | 461 |
| 15 | 이유 | 137 | 36 | 131 | 151 | 455 |
| 16 | 문화 | 113 | 49 | 75 | 215 | 452 |
| 17 | 회사 | 24 | 29 | 98 | 298 | 449 |
| 18 | 전 | 49 | 76 | 120 | 184 | 429 |
| 19 | 곳 | 64 | 59 | 113 | 190 | 426 |

| 상위 | 일반명사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20 | 이용 | 142 | 44 | 50 | 182 | 418 |
| 21 | 물건 | 38 | 75 | 118 | 186 | 417 |
| 22 | 이해 | 96 | 109 | 55 | 138 | 398 |
| 23 | 여 | 0 | 185 | 191 | 12 | 388 |
| 24 | 학교 | 54 | 40 | 112 | 179 | 385 |
| 25 | 여자 | 15 | 72 | 158 | 137 | 382 |
| 26 | 나라 | 38 | 28 | 89 | 224 | 379 |
| 27 | 요즘 | 18 | 24 | 109 | 219 | 370 |
| 28 | 건강 | 63 | 53 | 114 | 139 | 369 |
| 29 | 상황 | 84 | 32 | 134 | 103 | 353 |
| 30 | 설명 | 75 | 90 | 86 | 99 | 350 |
| 31 | 마음 | 70 | 32 | 86 | 154 | 342 |
| 32 | 도시 | 114 | 59 | 50 | 110 | 333 |
| 33 | 공부 | 27 | 23 | 75 | 207 | 332 |
| 34 | 전화 | 31 | 27 | 16 | 257 | 331 |
| 35 | 남자 | 18 | 60 | 136 | 114 | 328 |
| 36 | 필요 | 48 | 52 | 61 | 162 | 323 |
| 37 | 경험 | 85 | 41 | 72 | 121 | 319 |
| 38 | 시작 | 45 | 63 | 51 | 158 | 317 |
| 39 | 앞 | 45 | 56 | 105 | 110 | 316 |
| 40 | 동물 | 31 | 106 | 145 | 29 | 311 |
| 41 | 발표 | 9 | 89 | 78 | 131 | 307 |
| 43 | 고민 | 54 | 19 | 93 | 140 | 306 |
| 43 | 조사 | 35 | 90 | 119 | 62 | 306 |
| 44 | 학생 | 39 | 41 | 78 | 145 | 303 |
| 45 | 오늘 | 14 | 67 | 113 | 107 | 301 |
| 46 | 운동 | 30 | 22 | 118 | 130 | 300 |
| 47 | 이번 | 75 | 44 | 78 | 100 | 297 |
| 48 | 돈 | 24 | 34 | 69 | 160 | 287 |
| 49 | 날 | 49 | 37 | 101 | 99 | 286 |
| 50 | 아이 | 25 | 8 | 106 | 147 | 286 |

상위 빈도 50개 목록에 포함된 일반명사들의 특성을 볼 때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1단계~3단계)를 정비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한송화 외, 2015) 연구의 중급 '주제별 어휘 목록'에 포함된 '학교(생활), 집(구하기), 음식(설명하기/주문하기), 여행, 문화 (비교하기), 문제(해결하기), 물건(사기), 건강' 관련 어휘들이 고빈도 어휘에 포함되었다.

이어 교재별로 O-KTC 자료와 N-KTC 자료 간의 개발 시점 차이에 따라 어떤 어휘들이 신규 교재에 더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두 코퍼스 간의 빈도

차이뿐만 아니라 t-점수의 순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일 먼저 경희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30개를 아래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경희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상위 | 일반명사 | 신규 교재 | 기존 교재 | T-score |
|---|---|---|---|---|
| 1 | 도시 | 114 | 1 | 10.492 |
| 2 | 상황 | 84 | 5 | 8.088 |
| 3 | **문화유산** | 61 | 1 | 7.808 |
| 4 | **공연** | 79 | 6 | 7.555 |
| 5 | **경험** | 85 | 9 | 7.292 |
| 6 | **문화** | 113 | 18 | 7.287 |
| 7 | 자신 | 147 | 30 | 7.239 |
| 8 | 대학 | 71 | 6 | 7.020 |
| 9 | 기술 | 71 | 6 | 7.020 |
| 10 | 메모 | 59 | 3 | 6.910 |
| 11 | 택시 | 51 | 1 | 6.865 |
| 12 | 설명 | 75 | 8 | 6.836 |
| 13 | 서비스 | 54 | 2 | 6.811 |
| 14 | 집중 | 50 | 1 | 6.792 |
| 15 | 점검 | 45 | 1 | 6.705 |
| 16 | **여가** | 44 | 1 | 6.630 |
| 17 | 기억 | 72 | 8 | 6.624 |
| 18 | 프로그램 | 55 | 3 | 6.617 |
| 19 | 공유 | 43 | 1 | 6.554 |
| 20 | 소개 | 83 | 12 | 6.510 |
| 21 | 방송 | 57 | 4 | 6.504 |
| 22 | 계기 | 42 | 1 | 6.478 |
| 23 | 동네 | 56 | 4 | 6.428 |
| 24 | 축제 | 56 | 4 | 6.428 |
| 25 | 맛 | 58 | 5 | 6.319 |
| 26 | 이용 | 142 | 34 | 6.283 |
| 27 | 표시 | 43 | 1 | 6.256 |
| 28 | 결제 | 39 | 1 | 6.242 |
| 29 | 완성 | 46 | 2 | 6.200 |
| 30 | 기타 | 44 | 2 | 6.038 |

먼저 경희대의 기존 교재 대비 신규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온 어휘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문화유산, 공연, 경험, 문화, 여가’ 등으로 유사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어휘들이다. 기존 교재 대비 이러한 성격을 가진 어휘들의 발생이 높았다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 더욱 성장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교재 내에 공연 감상이나 문화유산 소개 그리고 늘어난 여가 활용으로서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고려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30개를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고려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상위 | 일반명사 | 신규 교재 | 기존 교재 | T-score |
|---|---|---|---|---|
| 1 | **남** | 364 | 8 | 18.621 |
| 2 | **여** | 185 | 1 | 13.521 |
| 3 | **동물** | 106 | 2 | 10.084 |
| 4 | 이해 | 109 | 5 | 9.918 |
| 5 | 생각 | 244 | 82 | 9.894 |
| 6 | 소개 | 95 | 4 | 9.299 |
| 7 | 습관 | 63 | 1 | 7.800 |
| 8 | 시작 | 63 | 3 | 7.525 |
| 9 | 사용 | 92 | 20 | 7.317 |
| 10 | 필요 | 52 | 1 | 7.060 |
| 11 | 감사 | 50 | 2 | 6.763 |
| 12 | 조사 | 90 | 24 | 6.727 |
| 13 | 선생 | 45 | 1 | 6.707 |
| 14 | 발표 | 89 | 24 | 6.659 |
| 15 | 확인 | 54 | 7 | 6.309 |
| 16 | 안녕 | 38 | 1 | 6.163 |
| 17 | 표시 | 40 | 1 | 6.152 |
| 18 | 도시 | 59 | 12 | 5.977 |
| 19 | **이용** | 44 | 4 | 5.975 |
| 20 | **진로** | 35 | 1 | 5.732 |
| 21 | **정보** | 61 | 16 | 5.576 |
| 22 | 관련 | 44 | 7 | 5.482 |
| 23 | **반려** | 30 | 1 | 5.475 |
| 24 | **문의** | 36 | 3 | 5.455 |
| 25 | **가입** | 29 | 1 | 5.383 |
| 26 | 가구 | 28 | 1 | 5.085 |
| 27 | **신청** | 33 | 4 | 4.985 |
| 28 | 구입 | 31 | 3 | 4.980 |
| 29 | 부탁 | 38 | 7 | 4.926 |
| 30 | 설문 | 55 | 18 | 4.769 |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신규 교재에서 '남, 여'라는 어휘가 기존 교재 대비 사용 빈도도 높고 t-점수도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교재와 달리 신규 교재에서 새로운 지칭어로 '남, 여'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신규 교재에서 '남'의 빈도는 364, '여'의 빈도는 '185'로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대화 쌍을 구성하거나 등장인물의 배치에 있어 균형적인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새롭게 등장한 어휘는 '동물, 반려'로 기존 교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어휘들이다.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나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한 내용이 이 두 어휘를 통해 대화나 텍스트 상에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 기존 교재 대비 신규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온 어휘 중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용, 진로, 정보, 문의, 가입, 신청' 등이 있다. 이는 급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사회 모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급의 주제 중 '공공기관 이용이나 직업과 진로' 등과 연계되는 내용이 신규 교재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30개를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서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상위 | 일반명사 | 신규 교재 | 기존 교재 | T-score |
|---|---|---|---|---|
| 1 | **남** | 311 | 15 | 16.055 |
| 2 | **여** | 191 | 1 | 13.686 |
| 3 | **동물** | 145 | 2 | 11.733 |
| 4 | 축제 | 110 | 1 | 10.486 |
| 5 | 준비 | 175 | 28 | 9.296 |
| 6 | 방법 | 162 | 24 | 9.225 |
| 7 | 소개 | 137 | 16 | 9.165 |
| 8 | 선생님 | 79 | 1 | 8.886 |
| 9 | 일치 | 79 | 1 | 8.886 |
| 10 | **고민** | 93 | 4 | 8.873 |

| 상위 | 일반명사 | 신규 교재 | 기존 교재 | T-score |
|---|---|---|---|---|
| 11 | 휴대폰 | 80 | 1 | 8.737 |
| 12 | **반려** | 76 | 1 | 8.716 |
| 13 | 경기 | 90 | 5 | 8.508 |
| 14 | 설명 | 86 | 5 | 8.272 |
| 15 | 조사 | 119 | 16 | 8.184 |
| 16 | **스트레스** | 67 | 1 | 7.958 |
| 17 | 거절 | 60 | 1 | 7.744 |
| 18 | 이유 | 131 | 23 | 7.712 |
| 19 | 사용 | 136 | 28 | 7.201 |
| 20 | **만족** | 54 | 1 | 7.096 |
| 21 | **후회** | 64 | 4 | 7.071 |
| 22 | 평가 | 67 | 5 | 7.050 |
| 23 | 영상 | 49 | 1 | 6.997 |
| 24 | 아르바이트 | 69 | 6 | 6.965 |
| 25 | 안녕 | 62 | 4 | 6.930 |
| 26 | 부모님 | 48 | 1 | 6.926 |
| 27 | 스타 | 48 | 1 | 6.926 |
| 28 | 변화 | 56 | 3 | 6.739 |
| 29 | 발표 | 78 | 10 | 6.728 |
| 30 | 동아리 | 45 | 1 | 6.705 |

서울대 신규 교재에서도 기존 교재와는 달리 새로운 지칭어로 ‘남, 여’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의 빈도는 311, ‘여’의 빈도는 ‘191’로 역시 차이가 1.5 배 정도로 나타났다. 교재 개발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양적 분석을 통해 비율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향후 교재 개발에서 대화 구성 시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 자료와 유사하게 ‘동물, 반려’와 같은 어휘들에서 높은 t-점수를 보였는데 이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현재의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의 기존 교재와 대비하여 신규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온 어휘 중,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고민, 스트레스, 만족, 후회’ 등으로, 개인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두 교재에서는 주로 사회적 층위 범주의 주제어에 포함되는 ‘문화, 공연, 진로, 정보’ 등의 어휘들이 높은 t-점수를 보여준 것과 차별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30개를 아래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연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명사 목록

| 상위 | 일반명사 | 신규 교재 | 기존 교재 | T-score |
|---|---|---|---|---|
| 1 | 생각 | 553 | 114 | 15.590 |
| 2 | 사용 | 269 | 9 | 15.504 |
| 3 | 소개 | 186 | 6 | 12.919 |
| 4 | **이용** | 182 | 8 | 12.521 |
| 5 | 시작 | 158 | 2 | 12.310 |
| 6 | 이해 | 138 | 1 | 11.608 |
| 7 | **휴대** | 196 | 23 | 11.314 |
| 8 | 선택 | 143 | 6 | 11.138 |
| 9 | **센터** | 143 | 6 | 11.138 |
| 10 | 필요 | 162 | 19 | 10.287 |
| 11 | 정리 | 138 | 12 | 10.077 |
| 12 | 설명 | 99 | 3 | 9.457 |
| 13 | **앱** | 87 | 1 | 9.326 |
| 14 | 문화 | 215 | 52 | 8.865 |
| 15 | **쓰레기** | 103 | 9 | 8.699 |
| 16 | 가짜 | 72 | 1 | 8.483 |
| 17 | 경험 | 121 | 17 | 8.473 |
| 18 | 고민 | 140 | 26 | 8.240 |
| 19 | 안녕 | 73 | 2 | 8.161 |
| 20 | 방법 | 268 | 83 | 8.082 |
| 21 | 발표 | 131 | 24 | 8.017 |
| 22 | 혼자 | 159 | 36 | 7.942 |
| 23 | **활용** | 63 | 1 | 7.935 |
| 24 | 나라 | 224 | 65 | 7.866 |
| 25 | **불편** | 70 | 3 | 7.780 |
| 26 | **신청** | 84 | 8 | 7.738 |
| 27 | 관리 | 72 | 4 | 7.715 |
| 28 | 결제 | 86 | 10 | 7.511 |
| 29 | 도시 | 110 | 20 | 7.370 |
| 30 | 감사 | 68 | 5 | 7.255 |

연세대 신규 교재에서 높은 빈도와 t-점수를 보인 어휘들은 특정 주제로 묶기가 다소 어려운데, '이용, 휴대, 센터, 불편, 신청' 등은 중급 주제에서 '문제 해결하기(분실 및 고장)'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 이용

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연세대 교재에서는 '앱'이나 '쓰레기, 활용'와 같은 어휘가 높은 빈도와 t-점수를 보였는데 다른 교재와 달리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였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재별로 기존 교재와 달리 특징적으로 나타난 신규 교재의 명사들을 검토한 결과, 교재의 대화나 상황 맥락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변화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가 신규 교재 어휘의 특징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 4.2.2. 동사

새롭게 구축된 N-KTC 교재 코퍼스에서 동사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동사 어휘 유형의 수는 O-KTC에서 3,317개로 나타났지만, N-KTC에서는 2,196개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주요 어휘 전체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1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 보였듯이 일반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어휘 유형이 일반명사의 약 1/6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라는 품사는 특성상 어휘 항목 수도 적고 동사 어휘만을 통해 주제나 기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사 어휘는 일반명사의 경우와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규 교재의 상위 빈도 동사들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동사의 등급은 한송화 외(2015)의 어휘 등급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전체 중급 교재 24권에 종합적으로 사용된 동사 상위 빈도 50개를 어휘 등급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기관별 중급 교재의 동사 상위 빈도 50개

| 상위 | 동사 | 등급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1 | 있다 | 초 | 860 | 796 | 1418 | 2439 | 5513 |
| 2 | 하다 | 초 | 595 | 630 | 1228 | 2354 | 4807 |
| 3 | **대하다** | **중** | 522 | 302 | 700 | 559 | 2083 |
| 4 | 되다 | 초 | 293 | 300 | 545 | 818 | 1956 |
| 5 | 보다 | 초 | 414 | 271 | 430 | 840 | 1955 |
| 6 | 가다 | 초 | 162 | 157 | 392 | 995 | 1706 |
| 7 | 쓰다 | 초 | 291 | 424 | 272 | 409 | 1396 |
| 8 | 듣다 | 초 | 387 | 288 | 318 | 354 | 1347 |
| 9 | 먹다 | 초 | 92 | 121 | 353 | 429 | 995 |
| 10 | 만들다 | 초 | 141 | 118 | 199 | 399 | 857 |
| 11 | 읽다 | 초 | 176 | 316 | 149 | 186 | 827 |
| 12 | 들다 | 초 | 72 | 243 | 183 | 287 | 785 |
| 13 | 고르다 | 초 | 154 | 187 | 205 | 235 | 781 |
| 14 | 받다 | 초 | 110 | 74 | 204 | 333 | 721 |
| 15 | 위하다 | 중 | 183 | 71 | 167 | 291 | 712 |
| 16 | **맞다** | **초/중** | 193 | 111 | 180 | 206 | 690 |
| 17 | 살다 | 초 | 81 | 99 | 156 | 317 | 653 |
| 18 | 알다 | 초 | 120 | 112 | 153 | 231 | 616 |
| 19 | 오다 | 초 | 54 | 87 | 176 | 242 | 559 |
| 20 | 생기다 | 초 | 56 | 46 | 129 | 187 | 418 |
| 21 | 배우다 | 초 | 77 | 45 | 105 | 151 | 378 |
| 22 | 좋아하다 | 초 | 50 | 42 | 125 | 155 | 372 |
| 23 | 만나다 | 초 | 44 | 52 | 139 | 119 | 354 |
| 24 | 찾다 | 초 | 72 | 60 | 52 | 163 | 347 |
| 25 | 주다 | 초 | 38 | 48 | 111 | 131 | 328 |
| 26 | 나오다 | 초 | 31 | 46 | 95 | 151 | 323 |
| 27 | 보내다 | 초 | 36 | 55 | 60 | 166 | 317 |
| 28 | 느끼다 | 초 | 109 | 20 | 67 | 112 | 308 |
| 29 | 가지다 | 초 | 41 | 34 | 69 | 137 | 281 |
| 30 | 보이다 | 초 | 56 | 55 | 77 | 93 | 281 |
| 31 | 나다 | 초 | 35 | 45 | 105 | 91 | 276 |
| 32 | 모르다 | 초 | 31 | 34 | 89 | 113 | 267 |
| 33 | 사다 | 초 | 25 | 35 | 69 | 133 | 262 |
| 34 | 알리다 | 초 | 40 | 38 | 47 | 119 | 244 |
| 35 | **따르다** | **중** | 88 | 27 | 45 | 74 | 234 |
| 36 | 내다 | 초 | 19 | 27 | 48 | 109 | 203 |
| 37 | 즐기다 | 초 | 60 | 10 | 48 | 80 | 198 |
| 38 | 타다 | 초 | 39 | 37 | 61 | 61 | 198 |
| 39 | 다니다 | 초 | 24 | 34 | 44 | 91 | 193 |
| 40 | 들어가다 | 초 | 15 | 39 | 42 | 85 | 181 |
| 41 | 드리다 | 초 | 13 | 41 | 41 | 80 | 175 |
| 42 | 나누다 | 초 | 42 | 14 | 30 | 83 | 169 |
| 43 | 지키다 | 초 | 28 | 13 | 30 | 94 | 165 |

| 상위 | 동사 | 등급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44 | **그러다** | **중** | 7 | 40 | 63 | 54 | 164 |
| 45 | 넣다 | 초 | 33 | 19 | 59 | 52 | 163 |
| 46 | 남다 | 초 | 57 | 14 | 45 | 45 | 161 |
| 47 | 자다 | 초 | 7 | 14 | 42 | 89 | 152 |
| 48 | 쉬다 | 초 | 11 | 24 | 41 | 71 | 147 |
| 49 | 입다 | 초 | 43 | 25 | 23 | 52 | 143 |
| 50 | 정하다 | 초 | 11 | 26 | 59 | 47 | 143 |

분석 결과 상위 빈도 50개에서 5개를 제외한 45개의 동사가 모두 초급 어휘에 해당하며, ‘쓰다, 읽다, 듣다, 배우다, 알다, 모르다’ 등 기본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동사들이 중급 교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중급 교재 학습자라 하더라도 초급에서 학습한 동사 어휘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이는 중급 교재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급에 속하는 어휘로는 ‘대하다, 위하다, 맞다, 따르다, 그러다’ 등이 등장하였다.

이어 교재별로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의 코퍼스를 비교하여 개별 동사의 빈도 및 t-점수를 확인하고 어떤 어휘들이 신규 교재에 더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관별로 신규 교재에서 기존 교재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된 동사 상위 20개 목록을 뽑아 살펴본 결과 동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향성이나 주제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신규 교재에서 t-점수가 높은 동사들을 추출한 결과가 상위 빈도 50개 동사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세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급 동사라는 특징도 나타낸다. t-점수 순으로 정리한 각 기관의 상위 20개 동사 목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17)]

<표 18> 기관별 교재의 t-점수 상위 동사 목록

| 상위 | 경희대 | 등급 | 고려대 | 등급 | 서울대 | 등급 | 연세대 | 등급 |
|---|---|---|---|---|---|---|---|---|
| 1 | **대하다** | **중** | 있다 | 초 | **대하다** | **중** | 있다 | 초 |

17) 일반명사와 다르게 동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t-점수의 구체적 숫자는 기재하지 않고 t-점수에 따른 순위만 기재하였다.

| 상위 | 경희대 | 등급 | 고려대 | 등급 | 서울대 | 등급 | 연세대 | 등급 |
|---|---|---|---|---|---|---|---|---|
| 2 | 듣다 | 초 | 쓰다 | 초 | 있다 | 초 | **대하다** | **중** |
| 3 | **맞다** | **초/중** | 읽다 | 초 | 고르다 | 초 | 고르다 | 초 |
| 4 | 보다 | 초 | 들다 | 초 | 듣다 | 초 | 만들다 | 초 |
| 5 | 느끼다 | 초 | 고르다 | 초 | 키우다 | 초 | 듣다 | 초 |
| 6 | 읽다 | 초 | 듣다 | 초 | **맞다** | **초/중** | 쓰다 | 초 |
| 7 | 남다 | 초 | **대하다** | **중** | 생기다 | 초 | **위하다** | **중** |
| 8 | **위하다** | **중** | 살다 | 초 | 즐기다 | 초 | **맞다** | **초/중** |
| 9 | 나타나다 | 초 | 만들다 | 초 | **위하다** | **중** | 읽다 | 초 |
| 10 | 물어보다 | 초 | 보다 | 초 | 올리다 | 초 | 알리다 | 초 |
| 11 | 고르다 | 초 | **맞히다** | **중/고** | 주다 | 초 | 살다 | 초 |
| 12 | 쓰다 | 초 | 배우다 | 초 | 읽다 | 초 | 느끼다 | 초 |
| 13 | 있다 | 초 | 되다 | 초 | 고치다 | 초 | 지키다 | 초 |
| 14 | 배우다 | 초 | 알리다 | 초 | 정하다 | 초 | 찾다 | 초 |
| 15 | **따르다** | **중** | 찾다 | 초 | 쓰다 | 초 | 보다 | 초 |
| 16 | 나누다 | 초 | **위하다** | **중** | **끌다** | **중** | 버리다 | 초 |
| 17 | 즐기다 | 초 | 보내다 | 초 | 받다 | 초 | 잃어버리다 | 초 |
| 18 | **빠지다** | **초/중** | 고치다 | 초 | 느끼다 | 초 | 보내다 | 초 |
| 19 | 만들다 | 초 | 잃어버리다 | 초 | 기르다 | 초 | 생기다 | 초 |
| 20 | 쌓다 | 초 | 먹다 | 초 | 얻다 | 초 | 받다 | 초 |

기관별로 신규 교재들에 수록된 t-점수 상위 동사들의 목록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르다, 대하다, 듣다, 쓰다, 위하다, 있다’라는 6개의 동사들은 4개 기관 목록에 모두 등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신규 교재 개발자들이 예전에 비해 위 동사들을 더욱 많이 사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명사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각 교재에서 출현한 일반명사와의 호응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해석되는 동사들이 주목할 만하다. 즉, 경희대 교재에서는 ‘보다, 느끼다, 즐기다’와 같이 감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보이는데, 이는 앞선 일반명사 분석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했던 ‘문화유산, 공연, 경험, 문화, 여가’ 등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교재에서는 ‘키우다, 생기다, 기르다’와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동사들이 상위를 차지한다거나 ‘받다, 느끼다’와 같이 감정 표현과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이 높은 t-점수를 받았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4.2.3. 형용사

새롭게 구축된 N-KTC 교재 코퍼스에서 형용사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형용사의 경우 '어휘 유형(Type)'의 수가 이전 교재(1,138 어휘)에 비해 신규 교재(990 어휘)에서는 150여 개 감소했지만 '총 어휘 수(Token)'는 14,500개에서 15,088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어휘적 다양도(TTR)'는 7.8%에서 6.6%로 다소 낮아졌다는 특성을 보였다. '분석 대상인 4개 기관의 교재에 사용된 형용사 중 종합 빈도가 높은 것부터 상위 50개를 제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기관별 중급 교재의 형용사 상위 빈도 50개

| 상위 | 형용사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1 | 좋다 | 176 | 149 | 448 | 715 | 1488 |
| 2 | 같다 | 122 | 204 | 304 | 567 | 1197 |
| 3 | 없다 | 114 | 122 | 266 | 449 | 951 |
| 4 | 많다 | 118 | 122 | 238 | 449 | 927 |
| 5 | 어떻다 | 116 | 140 | 278 | 325 | 859 |
| 6 | 그렇다 | 36 | 96 | 166 | 238 | 536 |
| 7 | 크다 | 54 | 80 | 93 | 159 | 386 |
| 8 | 중요하다 | 48 | 21 | 72 | 162 | 303 |
| 9 | 힘들다 | 40 | 21 | 72 | 163 | 296 |
| 10 | 다양하다 | 79 | 31 | 66 | 98 | 274 |
| 11 | 어렵다 | 41 | 27 | 74 | 130 | 272 |
| 12 | 쉽다 | 33 | 29 | 80 | 127 | 269 |
| 13 | 이렇다 | 31 | 46 | 56 | 105 | 238 |
| 14 | 다르다 | 35 | 67 | 50 | 76 | 228 |
| 15 | 재미있다 | 22 | 33 | 45 | 87 | 187 |
| 16 | 높다 | 37 | 41 | 55 | 53 | 186 |
| 17 | 특별하다 | 27 | 37 | 36 | 70 | 170 |
| 18 | 알맞다 | 80 | 49 | 24 | 15 | 168 |
| 19 | 맛있다 | 27 | 12 | 54 | 55 | 148 |
| 20 | 새롭다 | 26 | 21 | 34 | 66 | 147 |
| 21 | 아름답다 | 48 | 6 | 29 | 63 | 146 |
| 22 | 괜찮다 | 8 | 26 | 55 | 53 | 142 |
| 23 | 유명하다 | 27 | 22 | 35 | 45 | 129 |
| 24 | 작다 | 16 | 34 | 21 | 49 | 120 |

| 상위 | 형용사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25 | 편하다 | 10 | 12 | 29 | 65 | 116 |
| 26 | 나쁘다 | 4 | 4 | 37 | 69 | 114 |
| 27 | 아프다 | 7 | 11 | 30 | 66 | 114 |
| 28 | 비슷하다 | 15 | 24 | 31 | 41 | 111 |
| 29 | 바쁘다 | 11 | 15 | 29 | 55 | 110 |
| 30 | 따뜻하다 | 21 | 25 | 25 | 33 | 104 |
| 31 | 가능하다 | 21 | 13 | 13 | 50 | 97 |
| 32 | 심하다 | 7 | 9 | 40 | 37 | 93 |
| 33 | 어리다 | 22 | 8 | 21 | 42 | 93 |
| 34 | 늦다 | 8 | 15 | 28 | 36 | 87 |
| 35 | 가깝다 | 9 | 13 | 19 | 43 | 84 |
| 36 | 즐겁다 | 7 | 4 | 20 | 50 | 81 |
| 37 | 고맙다 | 6 | 10 | 27 | 28 | 71 |
| 38 | 춥다 | 4 | 17 | 27 | 22 | 70 |
| 39 | 깨끗하다 | 12 | 10 | 11 | 34 | 67 |
| 40 | 길다 | 5 | 18 | 15 | 27 | 65 |
| 41 | 예쁘다 | 4 | 13 | 15 | 33 | 65 |
| 42 | 싸다 | 4 | 5 | 14 | 40 | 63 |
| 43 | 적다 | 7 | 6 | 16 | 33 | 62 |
| 44 | 친하다 | 13 | 6 | 15 | 27 | 61 |
| 45 | 비싸다 | 10 | 4 | 10 | 35 | 59 |
| 46 | 궁금하다 | 15 | 8 | 10 | 23 | 56 |
| 47 | 뛰어나다 | 4 | 5 | 24 | 23 | 56 |
| 48 | 강하다 | 9 | 7 | 30 | 8 | 54 |
| 49 | 넓다 | 12 | 14 | 8 | 18 | 52 |
| 50 | 짧다 | 13 | 16 | 10 | 13 | 52 |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한송화 외, 2015) 연구에서는 중급 수준의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는 주제로 '감정/기분 표현하기, 날씨와 계절, 복장 표현하기, 성격 표현하기, 외모 표현하기, 음식 설명하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표에 정리된 상위 빈도 50개 목록에서는 그러한 중급 형용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4권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로 등장한 어휘들은 초급 수준의 어휘들이 대부분이었다.[18] 언어 사용 특성상 중급 어휘를 목표 어휘로 제시하고자 하더라도 함께 사용되는 어휘들이 모두 중급 어휘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적 학습의 대상인 고빈도 어휘의 상당 부분을

18) 중급 교재 형용사 상위 빈도 50개 중 중급 수준 어휘는 '가능하다, 뛰어나다' 2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초급 어휘로 나타났다.

초급 어휘가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교재 개발자들이 문장 구성에 있어 다시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 교재별로 O-KTC 자료와 N-KTC 자료 간의 개발 시점 차이에 따라 어떤 어휘들이 신규 교재에 더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두 코퍼스 간 빈도 및 t-점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경희대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형용사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20개를 아래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 경희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상위 | 형용사 | 등급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T-score |
|---|---|---|---|---|---|
| 1 | 알맞다 | 초 | 80 | 1 | 8.801 |
| 2 | 다양하다 | 초 | 79 | 5 | 8.167 |
| 3 | 아름답다 | 초 | 48 | 11 | 4.894 |
| 4 | **저렴하다** | **중** | 16 | 1 | 3.997 |
| 5 | 같다 | 초 | 122 | 65 | 3.505 |
| 6 | **진정하다** | **중** | 11 | 1 | 3.313 |
| 7 | 궁금하다 | 초 | 15 | 2 | 3.211 |
| 8 | 다르다 | 초 | 35 | 14 | 2.884 |
| 9 | 바르다 | 초 | 10 | 1 | 2.757 |
| 10 | **수많다** | **중** | 7 | 1 | 2.641 |
| 11 | 새롭다 | 초 | 26 | 10 | 2.586 |
| 12 | 소중하다 | 초 | 11 | 2 | 2.544 |
| 13 | **담백하다** | **중** | 6 | 1 | 2.444 |
| 14 | **환하다** | **중** | 6 | 1 | 2.444 |
| 15 | **생생하다** | **중** | 6 | 1 | 2.444 |
| 16 | **멋지다** | **중** | 6 | 1 | 2.444 |
| 17 | 뜨겁다 | 초 | 8 | 1 | 2.375 |
| 18 | **간편하다** | **중** | 5 | 1 | 2.230 |
| 19 | **화창하다** | **중** | 5 | 1 | 2.230 |
| 20 | **명확하다** | **중** | 5 | 1 | 2.230 |

경희대 교재의 형용사 어휘 중, 기존 교재 대비 신규 교재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된 어휘 중 중급 수준의 어휘에 집중해 보면 '환하다, 생생하다, 멋지다, 명확하다'등의 어휘가 눈에 띄는데 이는 앞선 분석에서 '문화유산, 대중매체, 공연 감상' 등과 관련된 주제가 특징적이었고 그에 따라 감상의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 어휘들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t-

점수가 높은 상위 20개의 어휘 중 중급 수준의 형용사가 10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휘의 효과적인 교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어 고려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20개를 제시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고려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상위 | 형용사 | 등급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T-score |
|---|---|---|---|---|---|
| 1 | 알맞다 | 초 | 49 | 10 | 6.059 |
| 2 | 다르다 | 초 | 67 | 38 | 5.129 |
| 3 | 같다 | 초 | 204 | 217 | 4.280 |
| 4 | 높다 | 초 | 41 | 22 | 4.141 |
| 5 | 다양하다 | 초 | 31 | 13 | 4.030 |
| 6 | 비슷하다 | 초 | 24 | 9 | 3.689 |
| 7 | 특별하다 | 초 | 37 | 23 | 3.593 |
| 8 | 작다 | 초 | 34 | 20 | 3.573 |
| 9 | 크다 | 초 | 80 | 75 | 3.423 |
| 10 | 따뜻하다 | 초 | 25 | 12 | 3.420 |
| 11 | 유명하다 | 초 | 22 | 11 | 3.146 |
| 12 | 편하다 | 초 | 12 | 5 | 2.514 |
| 13 | 넓다 | 초 | 14 | 7 | 2.510 |
| 14 | 부드럽다 | 초 | 6 | 1 | 2.447 |
| 15 | **적절하다** | **중** | 8 | 2 | 2.363 |
| 16 | 가깝다 | 초 | 13 | 7 | 2.327 |
| 17 | 간단하다 | 초 | 8 | 3 | 2.130 |
| 18 | **적합하다** | **고** | 4 | 1 | 1.997 |
| 19 | 어떠하다 | 초 | 4 | 1 | 1.997 |
| 20 | 진하다 | 초 | 4 | 1 | 1.997 |

고려대 교재의 형용사 어휘들은 '적절하다, 적합하다'를 제외한 상위 18개가 모두 초급 수준의 어휘라는 특징이 있다. 기존 교재 대비 신규 교재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된 어휘들은 '같다, 높다, 작다, 크다, 넓다, 가깝다' 등의 어휘로서 특별히 새로운 주제가 포함되면서 많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신규 교재 내 다양한 주제 상황을 위해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

가 높은 상위 20개를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서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상위 | 형용사 | 등급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T-score |
|---|---|---|---|---|---|
| 1 | 다양하다 | 초 | 66 | 3 | 7.641 |
| 2 | 좋다 | 초 | 448 | 257 | 5.290 |
| 3 | 강하다 | 초 | 30 | 2 | 5.000 |
| 4 | **멋지다** | **중** | 21 | 1 | 4.580 |
| 5 | **적절하다** | **중** | 21 | 1 | 4.580 |
| 6 | **어색하다** | **중** | 17 | 1 | 4.120 |
| 7 | 새롭다 | 초 | 34 | 8 | 4.037 |
| 8 | 같다 | 초 | 304 | 181 | 3.862 |
| 9 | 소중하다 | 초 | 13 | 1 | 3.602 |
| 10 | 알맞다 | 초 | 24 | 5 | 3.564 |
| 11 | **뛰어나다** | **중** | 24 | 5 | 3.564 |
| 12 | 따뜻하다 | 초 | 25 | 6 | 3.431 |
| 13 | 쌀쌀하다 | 초 | 14 | 1 | 3.392 |
| 14 | **솔직하다** | **중** | 11 | 1 | 3.313 |
| 15 | 비슷하다 | 초 | 31 | 10 | 3.219 |
| 16 | **아쉽다** | **중** | 10 | 1 | 3.158 |
| 17 | **낯설다** | **중** | 10 | 1 | 3.158 |
| 18 | **서투르다** | **중** | 10 | 1 | 3.158 |
| 19 | 따분하다 | - | 9 | 1 | 2.996 |
| 20 | 괜찮다 | 초 | 55 | 26 | 2.832 |

서울대 교재의 형용사 어휘 목록에서 기존 교재에 비해 신규 교재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된 어휘 중 중급 수준의 어휘에 집중해 보면 '어색하다, 솔직하다, 아쉽다, 낯설다, 서투르다' 등의 어휘가 눈에 띄는데 이는 앞선 분석에서 '고민,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일반명사의 사용이 특징적이었고 그에 따라 감정에 대해 표현할 때 필요한 형용사 어휘들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교재도 경희대 교재와 마찬가지로 t-점수가 높은 상위 20개의 어휘 중 중급 수준의 형용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휘의 효과적인 교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의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에 함께 사용된 어휘 중 t-점수가 높은 상위 20개를 아래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연세대 교재의 t-점수 상위 형용사 목록

| 상위 | 형용사 | 등급 | 신규교재 | 기존교재 | T-score |
|---|---|---|---|---|---|
| 1 | 같다 | 초 | 567 | 365 | 7.848 |
| 2 | 다양하다 | 초 | 98 | 26 | 7.164 |
| 3 | 특별하다 | 초 | 70 | 18 | 6.126 |
| 4 | 중요하다 | 초 | 162 | 82 | 6.018 |
| 5 | 쉽다 | 초 | 127 | 60 | 5.725 |
| 6 | 힘들다 | 초 | 163 | 98 | 4.773 |
| 7 | 새롭다 | 초 | 66 | 28 | 4.535 |
| 8 | 다르다 | 초 | 76 | 38 | 4.178 |
| 9 | 낫다 | 초 | 25 | 4 | 4.167 |
| 10 | 이렇다 | 초 | 105 | 60 | 4.149 |
| 11 | 크다 | 초 | 159 | 103 | 4.103 |
| 12 | 적당하다 | 초 | 24 | 4 | 4.049 |
| 13 | **뛰어나다** | **중** | 23 | 4 | 3.927 |
| 14 | 좋다 | 초 | 715 | 589 | 3.799 |
| 15 | 편하다 | 초 | 65 | 34 | 3.670 |
| 16 | 비슷하다 | 초 | 41 | 17 | 3.638 |
| 17 | 알맞다 | 초 | 15 | 1 | 3.604 |
| 18 | **간편하다** | **중** | 13 | 1 | 3.603 |
| 19 | **신기하다** | **중** | 18 | 4 | 3.261 |
| 20 | **가능하다** | **중** | 50 | 26 | 3.242 |

연세대 교재의 상위 형용사 어휘들은 고려대 교재의 양상과 유사하게 ‘간편하다, 신기하다, 가능하다’를 제외한 상위 17개가 모두 초급 수준의 어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기존 교재 대비 신규 교재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된 어휘들은 ‘같다, 다양하다, 특별하다, 중요하다, 쉽다, 힘들다, 새롭다‘ 등의 어휘로서 구체적 목록은 기존 교재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어휘들 역시 신규 교재에 특별히 새로운 주제가 포함되면서 많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신규 교재 내에서 다양한 주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간편하다, 신기하다, 가능하다‘의 사용은 앞선 분석에서 일반명사의 특징을 보았을 때 ‘이용, 휴대, 센터’ 등의 ‘문제 해결하기(분실 및 고장)’라는 중급 주제가 특징적이었던 점과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 4.2.4. 일반부사

새롭게 구축된 N-KTC 교재 코퍼스에서 일반부사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부사의 경우에는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KTC와 N-KTC에서 각각 6.2%(1,039개)와 6.0%(1,015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 어휘 수는 각각 14,263개와 14,056개로 신규 교재에서도 숫자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휘적 다양도에서도 6.2%와 6.0%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주요 어휘 항목들의 변화 양상과 비교해 보면, 일반부사 항목이 어휘 유형이나 총 어휘 수 그리고 어휘적 다양도 면에서 가장 작은 변화폭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4개 기관의 교재에 사용된 일반부사 중 종합 빈도가 높은 것부터 상위 30개를 제시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기관별 중급 교재의 일반부사 상위 빈도 30개

| 상위 | 일반부사 | 등급(의미)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1 | 잘 | 초(정도) | 237 | 202 | 554 | 510 | 1503 |
| 2 | 많이 | 초(양) | 63 | 117 | 180 | 361 | 721 |
| 3 | 같이 | 초 | 59 | 65 | 83 | 495 | 702 |
| 4 | 안 | 초 | 50 | 142 | 242 | 222 | 656 |
| 5 | 더 | 초(양) | 74 | 169 | 128 | 257 | 628 |
| 6 | 좀 | 초(정도) | 26 | 74 | 117 | 185 | 402 |
| 7 | 자주 | 초(빈도) | 53 | 47 | 145 | 137 | 382 |
| 8 | 가장 | 초(순서) | 81 | 77 | 95 | 110 | 363 |
| 9 | 정말 | 초(정도) | 24 | 34 | 128 | 130 | 316 |
| 10 | 함께 | 초 | 64 | 23 | 65 | 148 | 300 |
| 11 | 못 | 초 | 10 | 47 | 105 | 126 | 288 |
| 12 | 너무 | 초(정도) | 16 | 53 | 71 | 135 | 275 |
| 13 | 다시 | 초 | 35 | 111 | 48 | 57 | 251 |
| 14 | 다 | 초(양) | 5 | 39 | 67 | 137 | 248 |
| 15 | 왜 | 초(의문) | 10 | 42 | 88 | 105 | 245 |
| 16 | 직접 | 초 | 34 | 22 | 52 | 127 | 235 |
| 17 | **꼭** | **초/중** | 5 | 12 | 88 | 128 | 233 |
| 18 | 모두 | 초(수) | 17 | 36 | 73 | 107 | 233 |
| 19 | 지금 | 초(시간) | 13 | 59 | 55 | 93 | 220 |

| 상위 | 일반부사 | 등급(의미) | 경희대 |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총합계 |
|---|---|---|---|---|---|---|---|
| 20 | 먼저 | 초(순서) | 36 | 33 | 46 | 97 | 212 |
| 21 | 계속 | 초(시간) | 16 | 11 | 48 | 62 | 137 |
| 22 | 아직 | 초(시간) | 9 | 18 | 52 | 58 | 137 |
| 23 | 바로 | 초 | 19 | 22 | 30 | 57 | 128 |
| 24 | 처음 | 초(순서) | 14 | 25 | 44 | 36 | 119 |
| 25 | **및** | **중(접속)** | 96 | 12 | 2 | 7 | 117 |
| 26 | 빨리 | 초(속도) | 2 | 12 | 46 | 55 | 115 |
| 27 | 언제 | 초(의문) | 12 | 17 | 30 | 55 | 114 |
| 28 | 또 | 초 | 10 | 12 | 31 | 56 | 109 |
| 29 | 아주 | 초(정도) | 8 | 15 | 21 | 64 | 108 |
| 30 | 오래 | 초(시간) | 15 | 18 | 20 | 55 | 108 |

분석 결과 상위 빈도 30개에서 2개를 제외한 28개의 부사가 모두 초급 어휘에 해당하며, ‘정도(잘, 좀, 정말, 너무, 아주), 시간(지금, 계속, 아직, 오래), 양(많이, 더, 다), 순서(가장, 먼저, 처음)’ 등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성분들을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부사들이 중급 교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송화 외(2015)에서 구축한 중급 부사 개수는 총 264개인데 <표 24>의 상위 빈도 30개 부사 중에는 ‘및’ 한 개만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급 교재 개발 단계에서 중급에 속하는 부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 사용되고 있는 부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부사의 수가 타 품사에 비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부사의 빈도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은미(2021)에서는 근·현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정도부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고, 장서월(2023)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중심으로 빈도부사의 사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허은혜(2021)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호응부사 연구를 위해 교재 내에서 호응 관계를 보이며 등장하는 부사들의 용례를 살펴본 바 있다. 제한된 숫자를 가진 품사이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오류를 보이는 부사인 만큼, 코퍼스를 구축하여 교재 내 실현 양

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연구 중 특히 박은미(2021)은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의 부사 사용 양상을 밝혔는데 이를 N-KTC 자료와 연결하면 아래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5> 시기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정도부사

| 상위 | 1기 (1800-1918) | 2기 (1955-1968) | 3기 (1986-1995) | 4기 (2010-2015) | N-KTC (2019-2023) |
|---|---|---|---|---|---|
| 1 | 매우 | 참 | 너무 | 정말 | **많이** |
| 2 | 조금 | 더 | 조금 | 조금 | **더** |
| 3 | 너무 | 조금 | 아주 | 너무 | **가장** |
| 4 | 더 | 너무 | 참 | 더 | **정말** |
| 5 | 대단히 | 아주 | 정말 | 아주 | **너무** |
| 6 | 과히 | 매우 | 더 | 가장 | **아주** |
| 7 | 가장 | 퍽 | 많이 | 많이 | **조금** |
| 8 | 많이 | 몹시 | 꽤 | 참 | **참** |
| 9 | 심히 | 정말 | 가장 | 매우 | 보다 |
| 10 | 참 | 가장 | 매우 | 꽤 | **매우** |
| 11 | 몹시 | 꽤 | 훨씬 | 더욱 | 훨씬 |
| 12 | 아주 | 대단히 | 굉장히 | 무척 | **덜** |
| 13 | 더욱 | 많이 | 무척 | 굉장히 | **더욱** |
| 14 | 덜 | 더욱 | 하도 | 몹시 | 약간 |
| 15 | 퍽 | 덜 | 몹시 | 훨씬 | **꽤** |
| 16 | 꽤 | 제법 | 덜 | 덜 | 무척 |
| 17 | 극히 | 하도 | 더욱 | 하도 | 굉장히 |
| 18 | 하 | 굉장히 | 대단히 | 약간 | **대단히** |
| 19 | 그대토록 | 약간 | 제법 | 퍽 | 그다지 |
| 20 | 약간 | 무척 | 퍽 | 대단히 | 하도 |

박은미(2021)에서는 근·현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시대에 따라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정도부사의 변화를 살폈는데 한국어 교재의 구성과 형식이 바뀌면서 현대로 올수록 구어의 표현이 한국어 교재에 많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 연구에서 사용한 현대 한국어 교재의 27개 정도부사와 근대 한국어 교재의 21개 정도부사를 N-KTC 자료에서 찾아본 결과 '과히, 극히, 몹시, 심히, 자못, 퍽, 되게, 썩, 제법, 한결'과 같은 부사들은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교재 출판 시기를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시대를 1기-4기로 구분해 각 부사의 빈도를 살핀 결과와 N-KTC상에 나타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상위 20개 부사 중 '많이, 더, 가장, 정말, 너무, 아주, 조금, 참, 매우, 덜, 더욱, 꽤, 대단히'와 같은 13개의 부사가 전 시기에 걸쳐 고빈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도부사의 교육에 있어 이러한 고빈도 부사들은 시대를 넘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필수적 교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 각 교재별로 기존 교재와 신규 교재의 코퍼스를 비교하여 개별 부사의 빈도 및 t-점수를 확인하고 어떤 어휘들이 신규 교재에 더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관별로 신규 교재에서 기존 교재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된 부사 상위 20개 목록을 뽑아 살펴본 결과 앞서 분석한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제나 개념을 나타내는 양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 교재에서 t-점수가 높은 부사들을 추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상위 빈도 50개 동사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세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급 부사라는 특징도 나타낸다. t-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한 각 기관의 상위 20개 부사 목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기관별 교재의 t-점수 상위 일반부사 목록

| 상위 | 경희대 | 등급 | 고려대 | 등급 | 서울대 | 등급 | 연세대 | 등급 |
|---|---|---|---|---|---|---|---|---|
| 1 | 및 | 초 | 더 | 초 | 잘 | 초 | 같이 | 초 |
| 2 | 잘 | 초 | 다시 | 초 | 자주 | 초 | 함께 | 초 |
| 3 | 가장 | 초 | 처음 | 초 | 가장 | 초 | 직접 | 초 |
| 4 | 현재 | 초 | 가장 | 초 | 함께 | 초 | 잘 | 초 |
| 5 | 자주 | 초 | 현재 | 초 | 직접 | 초 | 바로 | 초 |
| 6 | 함께 | 초 | 미리 | 초 | 혹시 | 초 | 보다 | - |
| 7 | 직접 | 초 | 지금 | 초 | 먼저 | 초 | 가장 | 초 |
| 8 | **꾸준히** | **중** | 새로 | 초 | **꼭** | 초/중 | **꼭** | 초/중 |
| 9 | 같이 | 초 | 잘 | 초 | 정말 | 초 | 진짜 | 초 |
| 10 | 바로 | 초 | 매년 | 초 | 최근 | - | 서로 | 초 |
| 11 | 최근 | - | 보통 | 초 | **무조건** | **중** | 계속 | 초 |
| 12 | 또는 | 초 | 점점 | 초 | 자꾸 | 초 | 오래 | 초 |
| 13 | 먼저 | 초 | 특히 | 초 | 처음 | 초 | 미리 | 초 |
| 14 | 더 | 초 | 직접 | 초 | 계속 | 초 | 푹 | 초 |

| 상위 | 경희대 | 등급 | 고려대 | 등급 | 서울대 | 등급 | 연세대 | 등급 |
|---|---|---|---|---|---|---|---|---|
| 15 | 처음 | 초 | 바로 | 초 | 약간 | 초 | **하나하나** | **중** |
| 16 | 매년 | 초 | 자세히 | 초 | 모두 | 초 | **각자** | **중** |
| 17 | **우연히** | **중** | 매우 | 초 | **당장** | **중** | **실제로** | **중** |
| 18 | 보다 | 초 | 최근 | - | **마구** | **중** | 특별히 | 초 |
| 19 | **내내** | **중** | 요즘 | - | 잘못 | 초 | 매월 | - |
| 20 | **여전히** | **중** | 똑같이 | 초 | **꾸준히** | **중** | **흔히** | **중** |

각 기관별로 신규 교재들에 수록된 t-점수 상위 부사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잘, 가장, 직접'과 같은 3개 부사는 4개 기관 목록에 모두 등장하여 전체적으로 신규 교재 개발자들이 예전에 비해 위 부사들을 더욱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재별로 신규 교재에 더 많이 등장한 중급 부사들이 있었는데, 경희대는 '꾸준히, 우연히, 내내, 여전히', 서울대는 '무조건, 당장, 마구, 꾸준히', 연세대는 '하나하나, 각자, 실제로, 흔히'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기존 교재 대비 신규 교재에서 특징적으로 더 사용한 중급 수준 부사는 보이지 않았다.

## 4.3.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의 공시적 비교

4.2장에서 기관별로 이전 교재와 신규 교재 사이의 어휘 사용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새로 구축하게 된 N-KTC에서 교재별로 어휘 사용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N-KTC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교재에서 t-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어휘들을 모아 보면 그 교재의 어휘 사용상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4.2장에서와 같이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의 순서로 기관별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어휘들을 정리하여 비교해 보면서 각 교재를 특징짓는 어휘들이 무엇인가를 기술해 보겠다.

### 4.3.1. 일반명사

먼저 경희대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온 명사들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유적지, 명소, 장면’ 등과 같이 문화생활과 관련된 명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연, 추억, 팬클럽’ 등 대중매체 관련 명사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려대 교재의 어휘들을 살펴보면 ‘문의, 신청서, 회원, 도서관, 항목, 가입’ 등 공공기관 이용이나 회원 가입 등과 관련한 명사들이 눈에 띈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호랑이, 떡, 시골, 옛날이야기, 제비’ 등 전래 동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대의 경우 교재 내에 ‘문화’ 항목을 별도로 배치하고 거기에서 전래 동화를 다룬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교재는 ‘센터, 앱, 인터넷, 셰어, 하우스, 사이트’ 등 다른 교재에 비해 외래어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카드, 결제, 돈, 신용, 가게, 비용’ 등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어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일반명사

| 교재 | 일반명사 |
|---|---|
| 경희대 | **문화유산**, 기술, 이용, 점검, 동네, 공유, 기억, 영화, 자신, 도시, 집중, 교통수단, 택시, 인식, 계기, 완성, **공연**, 칼국수, 이유, 안면, 특징, **추억**, **팬클럽**, 인물, **유적지**, 벚꽃, 서비스, 시대, 한복, 단풍, 계절, 맛, 장점, 귀농, 대학, **명소**, **장면**, 기관, 공공 |
| 고려대 | 동물, 선생, 조사, 사고, 발표, **문의**, 교육, 기온, 청년, 습관, 성향, **신청서**, 표시, 자료, 가구, 손, 배고픔, 생각, 사건, **회원**, 사진, 감사, **도서관**, 지역, 비, 문자, 소년, 확인, 제품, 진로, 환경, 소개서, **가입**, 호텔, 곤충, 관심, 기내식, 판매, **항목** |
| 서울대 | 경기, 고향, 축제, 친구, 휴대폰, 오염, 동물, 평가, **호랑이**, 버릇, 줄임말, 후회, 결혼, 속담, 스타, 쌀, 고장, 여자, 반려, 남자, 기념일, 다리, **떡**, 만족, **시골**, **옛날이야기**, 태도, **제비**, 멸종, 라면, 대회, 과학, 동영상, 선생님, 절약, 정전기, 오해, 바다, 원인 |

| 교재 | 일반명사 |
|---|---|
| 연세대 | 학습, 휴대, 전화, 시간, 회사, 일, 이사, 공부, 혼자, 놀이, 나라, 요즘, 식사, 집, **센터**, **앱**, **인터넷**, 때, 사과, 모임, 준비, 유학, **카드**, 복습, 시험, 진료, 개인주의, 지능, 가짜, **결제**, 성격, 수면, **돈**, 술, 스터디, 쓰레기, **셰어**, 직원, 한국말, 설날, 추석, 기숙사, 초대, **하우스**, **사이트**, **신용**, 개인, 관리, 존댓말, **가게**, **비용** |

이러한 중급 교재 내 일반명사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김일환·이승연(2014:207)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존에는 중급 전반에 걸쳐 '에너지, 스트레스, 컴퓨터, 폴더, 메일, 센터, 원룸, 서비스, 프로그램, 클로버, 이미지' 등 매우 다양한 외래어가 쓰였으나, 신규 교재들에서는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에서 외래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3.2. 동사

동사에서는 연세대 교재가 다른 교재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였다. '가다, 하다, 있다, 자다, 만들다, 사다, 받다, 놀다' 등 초급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의 t-점수가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연세대 교재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동사의 어휘 유형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총 어휘 수도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 어휘적 다양도가 매우 낮게 분석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19] 그 외 나머지 교재들은 전반적으로 t-점수가 높게 나온 어휘들 목록에서 절반 이상이 중급 수준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경희대 교재는 그 중에서도 '느끼다, 즐기다, 겪다'와 같은 감정 표현 관련 동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는 앞서 일반명사의 특징을 분석할 때 경희대 교재에 문화생활이나

19) 연세대 신규 교재의 동사 어휘 유형 규모(603개)는 이전 교재에 수록된 규모(1,132개)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교재들의 동사 어휘 유형(경희대 505개, 고려대 493개, 서울대 595개)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사의 총 어휘 수는 20,076개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어휘적 다양도는 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4개 기관 교재의 어휘별 비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중매체 관련 어휘가 많았던 특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다치다, 끊기다, 부러지다, 막히다, 넘어지다'와 같이 사건·사고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t-점수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동사

| 교재 | 동사 |
|---|---|
| 경희대 | 듣다, 대하다, 맞다, **느끼다**, 따르다, 위하다, 물어보다, 보다, 인하다, 남다, **즐기다**, 쓰다, **겪다**, 나타나다, 통하다, 입다, 새기다, 떠나다, 읽다 |
| 고려대 | 읽다, 쓰다, 들다, 고르다, 듣다, 맞히다, 고치다, 세다, 내리다, 그러다, 드리다, 사귀다, 전하다, 힘내다, 낳다, 올려놓다, 들어가다, 반하다, 덮이다 |
| 서울대 | 먹다, 키우다, 만나다, 고치다, 기르다, 의하다, 나다, 줄어들다, 올라오다, 이기다, 나타내다, 정하다, 열리다, **다치다**, 사라지다, **끊기다**, **부러지다**, **막히다**, 일어나다, 대다, 그러다, 굽히다, 떨다, **넘어지다**, 몰라보다, 변하다 |
| 연세대 | **가다**, **하다**, **있다**, 모이다, 놓다, 원하다, 버리다, **자다**, 보내다, 살다, 지키다, 내다, **만들다**, 묻다, 벌다, **사다**, 세우다, **받다**, 부르다, 가르치다, 바라다, **놀다**, 끓이다, 붙이다, 권하다, 괴롭히다, 가지다, 찌다, 알리다 |

### 4.3.3. 형용사

형용사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경희대 교재는 '다양하다, 아름답다, 독특하다, 화려하다, 생생하다' 등 감상하는 대상에 대해 표현하는 형용사들의 t-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검토한 일반명사, 동사의 특성 분석과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고려대 교재의 경우에는 다른 교재에 비해 전반적으로 t-점수가 높은 형용사의 수가 적은데, 구체적으로 '작다, 크다, 높다, 낮다, 짧다, 길다, 다르다, 같다' 등 초급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형용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서울대 교재는 t-점수가 높은 형용사의 규모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고, 특히 '맵다, 싱겁다, 짜

다, 맛있다, 기름지다' 등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들과 '착하다, 강하다, 친근하다, 솔직하다, 멋지다' 등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된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교재는 서울대 교재 다음으로 t-점수가 높은 형용사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힘들다, 편하다, 급하다, 부끄럽다, 섭섭하다, 활발하다, 느긋하다, 불쾌하다' 등 감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쓰였다. 이러한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형용사

| 교재 | 형용사 |
|---|---|
| 경희대 | 알맞다, **다양하다**, **아름답다**, 저렴하다, 진정하다, **독특하다**, 이러하다, 일정하다, **화려하다**, 쾌적하다, 동그랗다, 수많다, 환하다, 심각하다, **생생하다**, 어리다, 궁금하다, 올바르다, 명확하다 |
| 고려대 | **다르다**, 알맞다, **작다**, **크다**, **높다**, **짧다**, **같다**, **길다**, 특별하다, 따뜻하다, 낮다, 그렇다, 넓다 |
| 서울대 | **착하다**, **강하다**, 뻔하다, 쌀쌀하다, 어떻다, 어색하다, 심하다, 적절하다, 따분하다, 괜찮다, 흥미진진하다, 서운하다, **맵다**, 서투르다, 뜨겁다, **친근하다**, 활기차다, **싱겁다**, 불과하다, **솔직하다**, 흐리다, **짜다**, **맛있다**, **멋지다**, 뛰어나다, 무섭다, 괴롭다, 한산하다, **기름지다**, 밉다, 좋다 |
| 연세대 | 좋다, **힘들다**, 중요하다, 많다, 나쁘다, 같다, 적당하다, 즐겁다, 아프다, 싸다, 없다, **편하다**, **급하다**, **부끄럽다**, 비싸다, 젊다, 더럽다, **섭섭하다**, **활발하다**, 충분하다, 낫다, **느긋하다**, 굵다, 쓰리다, **불쾌하다** |

이러한 중급 교재 내 형용사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김일환·이승연(2014:208)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존 분석에서 경희대 기존 교재에는 초급 단계 목록에 포함된 어휘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신규 교재에는 중급 수준 이상의 어휘들이 많아졌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연세대 기존 교재에 감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던 점은 신규 교재 분석 결과와 공통점을 보이긴 하나 감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구체적 목록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3.4. 일반부사

마지막으로 N-KTC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재별 부사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사의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15:455-460)에서는 한국어의 부사를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누고 있다. 성분부사는 다시 의미에 따라 성상부사, 지시부사, 그리고 부정부사로 나누었으며 문장부사는 서법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의 유형 중 일반부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만큼, 국립국어원의 분류 유형에서 접속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사들이 교재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특성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경희대 교재는 '제대로, 꾸준히, 실제로, 그대로, 자세히'와 같이 3음절 부사가 많은데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보인다. 고려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부사의 종류가 많지 않고 등장한 부사들이 초급 수준의 부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대 교재의 부사는 다른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 많고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혹시, 꼭, 어찌나, 설마, 여간, 아무래도'와 같이 다른 문장성분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부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벌써, 금방, 최근, 아까, 아직, 일찍, 방금, 당장'과 같은 시간을 지시하는 지시부사의 사용도 매우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교재의 부사는 '서로, 각자, 함께, 혼자, 따로따로, 하나하나'와 같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주체가 나타내는 성향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사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와 연세대 교재에서는 공통적으로 '슬근슬근, 아슬아슬, 따로따로, 하나하나'와 같은 '첩어' 형태의 일반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중급 교재에서 t-점수가 높게 나타난 부사

| 교재 | 일반부사 |
|---|---|
| 경희대 | 가장, 함께, 잘, 현재, 주로, **제대로**, 더욱, 또는, **꾸준히**, **실제로**, 없이, 내내, **그대로**, **자세히**, 마치 |
| 고려대 | 다시, 더, 지금, 안, 거의, 늘, 가장 |
| 서울대 | 잘, 안, 정말, 무조건, 자주, **혹시**, 자꾸, 약간, 마구, **벌써**, **금방**, **꼭**, 못, **최근**, **아까**, 빨리, 슬근슬근, 아슬아슬, 왜, 솔직히, **어찌나**, 일부러, **아직**, **일찍**, 깜짝, **설마**, **여간**, **방금**, **아무래도**, 펑, **당장** |
| 연세대 | **서로**, **각자**, 미리, 오늘, **함께**, 도대체, 너무, **혼자**, 열심히, 물론, 보다, 덜, 이제, 그냥, **따로따로**, **하나하나**, 가만히, 매달 |

이러한 중급 교재 내 부사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김일환·이승연(2014:209)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존 분석에서는 연세대 교재가 다른 교재에 비해 일반부사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특히 다른 문장성분과 호응 관계에 놓이는 부사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신규 교재에서는 그러한 일반부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5. 결 론

지금까지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중급 한국어 교재 24권을 기반으로 구축한 (신)한국어 교재 코퍼스(N-KTC)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중급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휘 유형, 총 어휘 수 그리고 어휘적 다양도를 기준으로 전체 어휘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 교재와 신규 교재는 전체 어휘 유형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빈도를 보여주는 총 어휘 수는 149,383개에서 201,542개로 늘어나 35%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특정 어휘들이 이전 교재에서보다 더욱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규 교재 전체의 어휘적 다양도는 결과적으로 약 8%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휘 유형의 규모만 보면 고려대와 연세대 교재의 경우에는 이전 교재보다 규모가 줄어든 반면, 경희대와 서울대 교재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그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교재의 어휘 유형 규모는 3,390개에서 4,202개로 가장 큰 폭(23.95%)으로 증가하였다. 이어, 어휘적 다양도 측면을 분석한 결과, 경희대나 고려대 교재의 경우에는 어휘적 다양도를 보여주는 값(TTR)이 10% 초중반 내외로 이전 교재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대와 연세대 교재의 경우, 기존에도 낮았던 9% 내외의 어휘적 다양도 값이 서울대 7.6%, 연세대 6.1%로 더욱더 낮아졌다. 이는 어휘 유형의 총량이 다른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어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급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중 연세대 교재의 어휘적 다양도가 6.1%로 가장 낮았으며 고려대 교재의 어휘적 다양도는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려대 교재가 전체 규모에 비해 다양한 어휘를, 반면 연세대 교재는 전체 규모에 비해 반복되는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휘적 다양도를

어휘 단위로 층위를 낮추어 살펴보면, 연세대 교재의 동사는 3%로 가장 낮고 고려대 교재의 명사는 15.8%로 가장 높아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 주요 어휘 범주(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를 중심으로 기관별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변화에 대한 통시적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희대 교재에서는 이전보다 공연 감상이나 문화유산 소개와 관련된 명사와 형용사 사용이 많았고, 고려대 교재에서는 공공기관 이용이나 직업과 진로와 관련된 내용의 어휘가 많이 등장하였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개인의 감정 표현과 관련한 명사, 형용사의 사용이 이전 교재에서보다 눈에 띄었고 연세대 교재에서는 문제 해결하기 등과 관련된 명사와 형용사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명사나 형용사의 사용 양상은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의 내용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반면 동사나 일반부사의 경우 시간적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4개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희대 교재와 고려대 교재의 경우 통시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희대는 문화생활 및 대중매체 관련 어휘들이 t-점수가 높게 나왔고 고려대는 공공기관 이용이나 회원 가입 등과 관련된 어휘들이 t-점수가 높게 나왔다. 반면에 서울대 교재는 전래동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았고 연세대 교재는 타 교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외래어들을 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품사에 있어 서울대 교재는 타 기관 교재들에 비해 t-점수가 높은 어휘들의 개수도 많고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 반면에 고려대 교재는 t-점수가 높은 어휘들이 적고 특히 초급 수준의 어휘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통시적 관점에서 교재별로 나타나는 일반명사 사용상의 특징이 동사, 형용사 사용과 연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공시적 관점에서 각 교재가 다른 교재에 대비하여 보이

는 특징과도 일정 부분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가 수행한 양적 분석 결과는 신규 교재의 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참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앞서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 '교수·학습 이론 관점에서 고려대 교재는 형태를 고려한 과제 중심 접근 방법을 택하였고 나머지 교재들은 주제·기능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 것을 주요한 차이점으로 주장했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이 고려대 교재의 어휘 규모가 줄어든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선행연구에서는 신규 교재들이 가지는 주요한 특성으로 문법·발음·어휘 항목이 경량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어휘의 양적 변화 양상에 주목한 본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신규 교재들의 어휘 유형이나 총 어휘 수는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양적 분석의 결과는 각 교육 기관이 가지는 교육 철학이나 교수법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며 어떤 특정 교재가 다른 교재보다 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둔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급 교재가 가지는 특성상 초급에서 배운 어휘를 일정 정도 반복하여 사용하고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초급 어휘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특히 교재 개발 시에 저자들은 단원 별로 정해진 주제와 기능에 따라 목표 어휘 및 등급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과 기대 학습 효과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교재 내에서 목표 어휘 외에 부수적으로 제시되는 어휘의 규모 및 난이도까지는 개별 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찾아낸 양적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교재 개발자들은 개발된 교재가 가지는 어휘적 특성을 인식하고 향후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특정 교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한국

어 교육자들이나 개별 교사 혹은 학습자들에게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양적 연구가 그러하듯이 연구 대상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다른 기관의 중급 교재들이 출간되면 보다 큰 표본을 확보하여 더욱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중급 교재만을 논의했으나 향후 초급이나 고급 교재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등급이 올라가면서 한국어 어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확장된 연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어 중급 교재의 어휘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형태소 분석과 t-점수만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양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도구 활용을 모색하여 다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등급 간 혹은 교재 간 어휘 중복도를 산출하여 비교한다거나 교재 텍스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의 어휘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구어·문어 말뭉치 자료와의 비교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양적 분석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적 접근을 통한 보완이 미진하였다. 예를 들어 양적 분석을 통해 구축된 어휘 목록을 통해 사회 변화 양상, 혹은 교재 개발자들의 세대 변화 등에 따른 구체적인 어휘 사용 양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미처 수행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전 교재에서는 존재하다가 사라진 어휘나 사용되지 않다가 새롭게 나타난 어휘들을 목록화하고 특정 경향성을 발견한다면 한국어 교재 속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 및 사회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현화(2000),「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과 말뭉치」,『응용언어학』16(1), 한국응용언어학회, 99-117쪽.

강현화(2014),「국내 한국어교육기관 교재 어휘 분석 연구 1: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41, 37-60쪽.

강현화 외(2022),『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민경(2023),「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의 변화 양상 및 발전 방향」,『Journal of Korean Culture』60,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43-280쪽.

김보영(2021),「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분석을 통한 표현 문형 오류 분포 연구: 담화 유형과 담화 장르를 중심으로」,『국제어문』89, 국제어문학회, 341-371쪽.

김일환·이도길(2011),「대규모 신문 기사의 자동 키워드 추출과 분석: t-점수를 사용하여」,『한국어학』53, 한국어학회, 145-194쪽.

김일환·이승연(2014),「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우리어문연구』48, 우리어문학회, 187-218쪽.

김일환 외(2019),『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

김한샘(2017),「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주석의 요건과 실제: 형태 분석 말뭉치 구축을 중심으로」,『배달말』Vol., no.61, 배달말학회, 149-173쪽.

김한샘(2019),「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의 현황과 전망」,『한국어학』83, 한국어학회, 1-33쪽.

남신혜(2019),「내용 중심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용 어휘의 선정: 문화예술경영 전공 대학원 학습자를 중심으로」,『어문연구』47(4),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431-450쪽.
남신혜(2020),「한국어학 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용 어휘 선정: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새국어교육』 127, 한국국어교육학회, 491-516쪽.
남윤진·옥철영(1996),「말뭉치 분석에 기반한 명사파생 접미사의 사전정보 구축」,『정보과학회논문지(B)』23(4), 한국정보과학회, 389-401쪽.
류선숙 외(2021),「국외 학습자를 위한 실시간 화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어문연구』4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6-465쪽.
문금현(2010),「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언어와 문화』6(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9-135쪽.
민경모(2014),「한국어 고급 교재의 단원별 어휘량 및 어휘 반복도 분석 연구」,『언어와 문화』10(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79-100쪽.
민현식(2000),「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국어교육연구』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5-60쪽.
박은미(2021),「근·현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정도부사의 변화 양상 연구」,『한국민족문화』8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3-71쪽.
서상규(1998),「말뭉치에 기반을 둔 낱말 빈도의 조사와 그 응용: '연세 말뭉치'를 중심으로」,『한글』242, 한글학회, 225-270쪽.
서종학 외(2020),『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송찬우(2022),「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 교재의 말뭉치 기반 어휘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서인(2019),「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및 어휘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어학』83, 한국어학회, 35-68쪽.
신성윤·이양원(2009),「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명사 및 키워드 추출」,『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14, no.3, 51-56쪽.

원미진 외(2020),「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이상섭(1989),「뭉치언어학: 사전편찬의 필수적 개념」,『인문과학』62,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7-28쪽.

이영주(2018),「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재의 어휘교육 연구」,『교육연구』26,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37-56쪽.

이유경·최호철(2015),「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어문논집』74, 민족어문학회, 187-214쪽.

이유경(2018),「한국어 교재의 어휘 제시 양상에 대한 연구: 1980년대 이후에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이중언어학』73, 이중언어학회, 267-295쪽.

이지환(2019),「Integrated Korean 초·중급 교재의 어휘 연계성 분석: 증가, 반복, 심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서월(2023),「한국어 학습자의 빈도부사 사용양상 연구: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중심으로」,『한국어와 문화』3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17-147쪽.

차준경·강범모(2000),「형태소 분석 말뭉치의 파생명사 처리」,『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2000(10), 한국정보과학회, 390-394쪽.

최지영(2016),「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 분석」,『한국어문화교육』10(1),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9-48쪽.

최은규(2020),「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先淸語文』4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39-208쪽.

트란 티 반(2022),「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기초 연구: 요구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어교육연구』16,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67-192쪽.

한송화 외(2015),『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허은혜(2021),「한국어교육을 위한 호응 부사 연구」,『언어과학연구』99, 언어과학회, 273-392쪽.

허지이 외(2021),「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분석을 통한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 ‘아마’와 ‘혹시’를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6, 285-305쪽.

# ABSTRACT

## A study on changes in aspects of lexical use in Intermediate Korean Textbooks

### - Focusing on quantitative analysis -

Jongjin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changes in lexical use patterns in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Textbooks developed by maj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lexical use patterns of Korean textbook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N-KTC(new Korean textbook corpus) and the O-KTC(old Korean textbook corpus) extracted from the previously developed KTC(Korean textbook corpus).

Looking at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in detail, Chapter 1 revealed why research on changes in lexical use patterns in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textbooks was necessary and review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vocabulary in Korean textbooks and corpus-based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pter 2 summarizes what types of textbooks have been developed to examine the overall development status and change pattern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summarizes the results

of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hange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terms of external and internal composition.

Chapter 3 presents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N-KTC was constructed by analyzing 24 intermediate Korean textbooks newly developed by maj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Details were presented about morphological analysis corpus construction process for finding out the lexical use patterns and about relative high-frequency vocabulary extraction method to compare lexical use in each textbook.

In Chapter 4, based on the corpus construction results, the entire lexical use patterns were organized based on vocabulary type, total number of vocabulary, and lexical diversity. In addition, a diachronic and synchronic comparison of changes in lexical use patterns in textbooks by institution was attempted, focusing on major vocabulary categories(common nouns, verbs, adjectives, and general adverbs).

Finally, in Chapter 5, changes in lexical use patterns in intermediate Korean textbooks we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dding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suggestions of this study.